

함께하는 FTA

November 2014 vol. 30



커버 스토리 한·아세안 FTA의 현재와 미래

파워 인터뷰 팜 후찌 주한 베트남 대사

특집 2014 FTA 활용 성공사례 경진대회

FTA 강국, KOREA!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FTA 활용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FTA 활용은 더 이상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FTA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FTA는 바로 중소기업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FTA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주저말고

FTA 지원 기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국번 없이) 1380 지역FTA 활용지원센터 부산 051-990-7125 대구 053-222-3111~2 인천 032-810-2836 광주 062-350-5863 대전 042-480-3045, 3076
울산 052-287-3060~1 경기(남부) 031-546-6772, 6770 경기(북부) 031-995-7480~1 강원 033-257-4071 충북 043-229-2729, 2722 충남 041-539-4581 전북 063-711-2047, 2045
전남 061-288-3831 경북 054-454-6601(134) 경남 055-210-3043 제주 064-759-2577

관세청(본부세관) 서울 02-510-1568 부산경남 051-620-6637 인천경기 032-452-3163 대구경북 053-230-5251 광주전라 062-975-8051 평택(직할세관) 031-8054-7042
중소기업진흥공단 본사(글로벌 사업처) 02-769-6947, 6957 지역본부(수출협력팀) 서울 02-6678-4115 인천 032-450-0533 경기 031-259-7904 강원 033-259-7634
대전 042-866-0153 충남 041-621-3675 충북 043-230-6833 전북 063-210-9911 대구 053-601-5262 경북 054-476-9312 광주 062-600-3051 전남 061-280-8040
부산 051-630-7404 울산 052-703-1132 경남 055-212-1373 제주 064-751-2054

글 김보람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FTA People

우리가 어떤 민족이랬지? ... 무역의 민족!



2014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학생부문 대상
부산대학교 신현민·김민정·전현우

지난 10월 16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2014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관중들의 눈길을 끈 발표가 있었다. 배달 전문 앱 '○○의 민족' 광고를 패러디한 '무역의 민족' 동영상이 나왔을 때다. 오리지널 광고에서 비단에 빠진 표정의 여성이 '치킨 먹은 포인트로 깐풍기 먹을 수 있었대"라고 하던 대사는 "한·콜롬비아 FTA 관세인하 혜택 받을 수 있었대"로 바뀌었고, "우리가 어떤 민족이랬지?"라는 대사에 '무역의 민족'이란 자막이 떴다.

이 영상은 이번 경진대회 학생부문에 참여한 부산대학교 팀(사진 왼쪽부터 신현민·김민정·전현우)이 만든 것이다. 김민정 씨(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10학번)는 "발표 시간이 10분밖

에 안 된다고 해서 임팩트한 것이 필요했다"고

패러디 동영상을 준비한 이유를 설명했다. 젊은이다운 시도 때문인지 이들은 학생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런 아이디어가 눈길을 끈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이 대상의 자격은 아닐 것이다. 기획 단계에서의 주제 선정부터 쉽지 않았다. "처음에는 서비스 교역이나 온라인을 이용해 태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시나리오 등도 고려했지만, 서비스는 논의가 활발하지 않아 사례 찾기가 쉽지

않았고, 화장품 관련 사례도 이미 나온 것들이 있었다(신현민·부산대학교 경영학과 09학번)."한·중 FTA나 한·캐나다 FTA 등 최근 주목을 받은 FTA는 많이 나올 듯해서, FTA 교역을 개

척한다는 의미에서 한·콜롬비아 FTA를 선택했다(전현우·부산대학교 무역학과 10학번)."

이들은 콜롬비아 여성들이 뷰티에 관심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국내 중소기업이 만든 초음파 지방 제거기를 선택해 한·콜롬비아 FTA 활용 수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아직 발효되지 않은 FTA다 보니 자료가 별로 없었지만, 이들에게는 많은 공부가 됐다. 김민정 씨는 "지난해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딴 이후 FTA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번 참가를 기회로 한·콜롬비아 FTA 협정문을 직접 찾아보면서 FTA에 대해 더 잘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몇 년 후 세계를 누비게 될 예비 무역인들의 패기 어린 모습들이었다.❶

contents

November 2014 vol. 30



Issue Focus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어디까지 와 있나?



함께하는 FTA

- 발행일 2014년 11월 5일(통권 30호)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문의 044-203-4131)
발행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작협력 한국경제매거진

〈함께하는 FTA〉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저자의 견해로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COVER STORY

지난해 기준 아세안은 중국에 이은
한국의 2대 교역국입니다. 미국, 일본,
EU보다도 중요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아세안 내에서도 교역량이 많은 베트남,
인도네시아와는 별도의 FTA(또는
CEPA)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인 아세안
시장을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표지일러스트 서용남



FTA People

- 01 2014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학생부문 대상:
부산대학교
신현민·김민정·전현우

Issue Focus

- 04 TPP 추진 동향과 주요내용
명진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

- 06 지상증계: TPP 및 다자간
통상질서 변화가
한국 기업에 주는 시사점

- 08 FTA Guide
원산지관리시스템 확충을
도와드립니다

- 16 협상준비 중인 한·말레이시아
FTA의 현황과 전망
양채미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과정
인증만

- 17 FTA Cartoon
새로운 FTA 시대가
다가옵니다!
안종만
- 18 Power Interview
팜 후 씨 주한 베트남 대사
이혜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

COVER STORY

- 10 아세안 시장과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의 필요성
이재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 12 한·베트남 경제 교류 및
FTA 전망
정정태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 14 한·인도네시아 CEPA
추진 현황과 전망
송유황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관장

- 16 2014 FTA 활용 경진대회
수상기업: 양양
24 2014 FTA 활용 경진대회
수상기업: 앙양

- 26 2014 FTA 활용 경진대회
수상기업: 킹크웨어
38 천연염색 전문가 권성민
정겨운산골 마린도요 대표

- 40 신상목 기리야마 본진 대표
42 FTA News
한·캐나다 FTA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등
- 44 Index
FTA 용어 & 독자의 소리

Leader's View

- 20 라틴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의
TPP 협상 참여 원인 분석
하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중남미녹색융합센터 연구교수

- 34 사후검증 따라잡기:
⑩한·미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자료 구성
강동구 FTA무역증명지원센터 사후검증지원실 관세사

- 36 Culture Prism
인문학 강의:
남성은 왜 여성에 대해 불안해할까
최효찬 자녀경영연구소장(문화박사)

- 38 2014 FTA 활용 경진대회
수상기업: 킹크웨어
40 천연염색 전문가 권성민
정겨운산골 마린도요 대표

- 42 FTA Study
자유무역의 역사:
⑩양자간투자협정(BIT)
이경희 신세계 미래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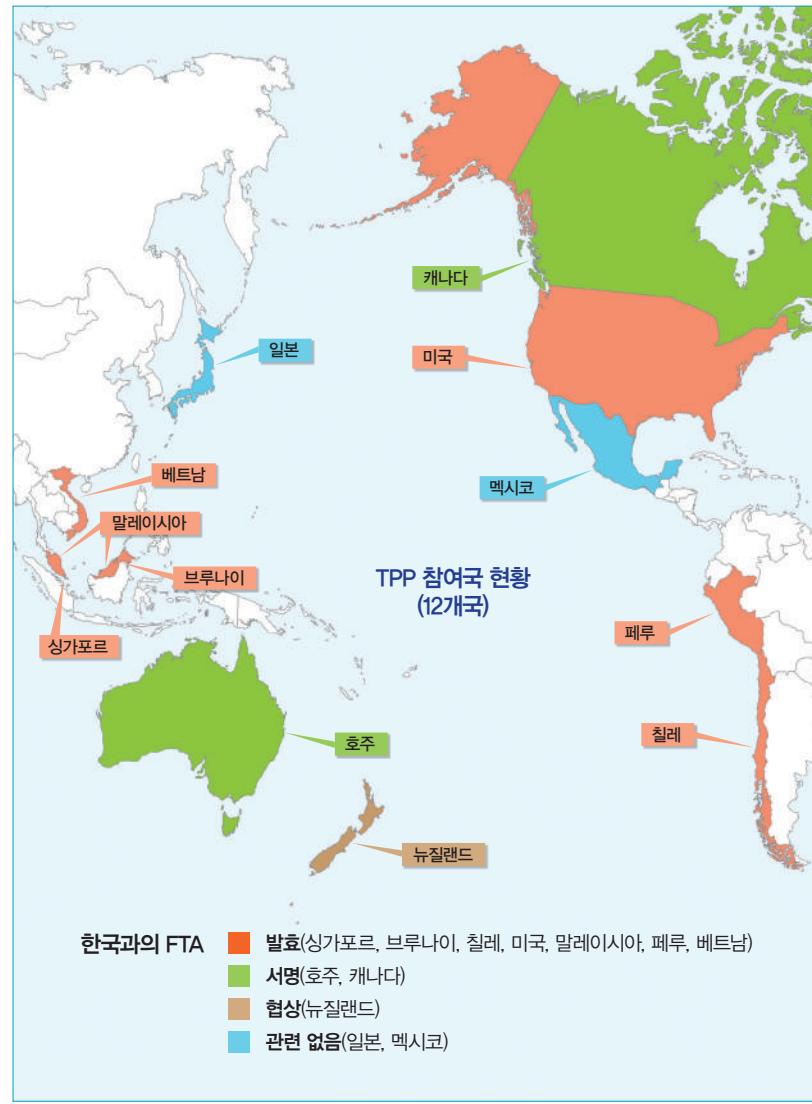
- 44 FTA News
한·캐나다 FTA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등
- 44 Index
FTA 용어 & 독자의 소리



TPP 추진 동향과 주요내용

참가국 정치적 결단 주저... 올 11월이 변곡점

금년 11월에는 세계 정상들이 만나는 무대가 여러 번 마련되어 있다. 중국에서 APEC 정상회의(10~11일), 미얀마에서 ASEAN+3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12~13일), 호주에서 G20 정상회의(15~16일) 등이 연달아 이어지는 것이다. 많은 국제 현안을 다루는 정상회의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러한 정상 간의 만남은 FTA에도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 정상회의 기간 중에 FTA 협상을 추진 중인 정상들이 별도로 만나 협상 진전의 걸림돌이 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 정치적 결단을 내릴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금년 11월 가장 주목되는 것 이 바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다. 실제로 TPP는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만큼 이번 같이 여러 정상들이 한 번에 모일 기회가 좀처럼 없고 협상 내용상으로도 정치적 결단이 아니면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단계에 와 있다. 때문에 금년 11월이 TPP의 향후 행보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사실 지난 해 10월에도 TPP 참가국들은 APEC 정상회의를 활용해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섯다운 문제로 오바마 대통령이 불참하며 구심점을 잃었고 실질적 성과를 얻지 못해 이후 협상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 왔다. 1년이 지나 TPP 참가국들은 다시 한 번 정치적 결단을 내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이는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또다시 논의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미·일 간 상품, 선진국·개도국 간
지재권·국영기업 쟁점 팽팽

TPP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협정을 지향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참여 12개국이 전 세계 GDP의 38.9%에 달하고 내용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표방하고 있어 양적·질적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정이 발효된다면 메가 FTA라는 말이 실로 단순한 수사가 아닐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상품 분야에서 전 품목을 협상대상으로 삼고 서비스·투자 분야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여 높은 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재권, 환경, 노동, 국영기업 등 폭넓은 분야를 협상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재 TPP 진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쟁점들은 이처럼 TPP가 지향하는 바와 각국의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발생한 것들이 주를 이룬다. 주요 쟁점을 축약해보면 ①미·일 간의 상품 분야 개방, ②신약 특허 보호 및 ③국영기업 우대 철폐에 대한 미국과 베트남·말레이시아와 같은 신흥국의 입장차로 갈무리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우선 상품 분야를 살피면 미국과 일본의 의견 차가 크다. 일본은 이른바 성역 5개 품목(쌀, 유제품, 사탕수수 등 감미작물, 밀·보리, 쇠고기·돼지고기)의 개방 예외를 주장하고 있다. 성역 5개 품목은 농업 개방에 대한 국내 여론 악화로 TPP 참여가 늦어지자 아베 총리가 TPP 참여를 선언하며 국내 외적으로 개방 예외를 담보한 품목들이다. 반면 미국은 TPP의 원칙대로 예외 없는 개방을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이 일본에 대해

자동차 및 부품 시장 개방에 수세적으로 대응 하자 문제는 더욱 깊히 있다. 최근 들어 소위 성역 농산물에 대한 수입쿼터 도입, 쇠고기·돼지고기 등에 대한 부분적인 관세 감축 등으로 의견이 절충되었으나 미국 양돈업계 등의 반발로 조율이 쉽지 않다. 미국, 일본이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미·일간 합의의 없이는 상품 분야 타결은 요원해 보인다. 다른 국가들도 미·일간 합의를 주시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국영기업과 지재권 관련 논의는 미국 등 선진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신흥국 그룹 간의 견해차가 선명하다. 국영기업과 관련해서는 미국 등이 민간 혹은 외국 기업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세제·정책상 우대를 철폐하도록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제 및 정책에서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을 이를 반대하는 형국이다. 실제로 베트남은 국영기업 수가 7,000여 개로 경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에게 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개도국의 반대가 심해 최근에는 이를 배려하고자 국영기업의 내부 감사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우

대 철폐에 대해 유예기간을 설정하거나 국방·에너지 등 일부 산업 분야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거리를 좁히고 있다.

지재권 분야 쟁점은 신약 개발 데이터의 보호 기간 설정이 핵심이다. 선도 제약 회사가 많은 미국은 막대한 신약 개발비를 고려하고 개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신약 데이터를 장기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은 데이터 보호기간이 길어질수록 복제약 출시가 늦어지고 악가 상승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지재권 분야 역시 쟁점이 첨예한 만큼 바이오, 항암제, 고부가가치 의약품 등은 신약 데이터 보호기간을 10년 전후로 길게 하고 감기약 등 일상 의약품은 5년 전후로 설정하는 등 약 종류에 따라 보호기간을 다르게 설정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

금년 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실질적 성과 나올지 관건

TPP의 협상 타결 시점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가 협상 타결의 실질적 데드라인이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내년 하반기부터 선거 국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 협상의 타결 혹은 그에 준하는 실질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협상이 장기 표류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내년 상반기 협상 타결 등의 성과는 금번 기회에 주요 쟁점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TPP의 행보에 관심을 갖는 것은 참가 12개국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가 TPP가 실질적 성과를 낼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TPP는 그 경제적 파급력과 함께 메가 FTA라는 새로운 조류의 탄생을 알리며 등장했지만 아직까지 그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TPP가 새로운 통상질서를 만들어내며 실제화 될 수 있을지 지지부진한 전개 속에 표류될지 11월의 중요한 변곡점을 주목해야 한다.

TPP 협상의 주요 쟁점

분야	주요 쟁점
상품 미국 vs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은 성역 5개 품목 개방 제외, 미국은 예외 없는 개방 주장 미국은 자동차 시장 장기 철폐, 일본은 초기 철폐 주장 일본 농산물 부분 개방으로 절충이 논의중이나 미국 업계 반발
경쟁정책(국영기업) 선진국 vs 신흥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등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국영기업 우대 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나,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은 경제적 영향을 염려하며 반대 개도국의 우대 철폐의 유예기간 및 예외 분야 설정 등으로 절충 중
지재권 선진국 vs 신흥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등이 저작권, 신약 데이터 보호 기간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복제약 생산의 영향을 염려하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이 반대 고부가가치 의약품은 보호기간 길게, 일상 의약품은 짧게 설정하는 등 약에 따라 보호기간의 차별적 설정 등을 논의 중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지상중계: TPP 및 다자간 통상질서 변화가 한국 기업에 주는 시사점

TPP 참여국 구성 다양... 입장차가 타결 걸림돌

최근 국제 통상 분야에서 최대의 관심사로 꼽히는 것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 멕시코, 베트남 등 개도국이 참여하는 TPP가 체결되면 향후 세계 무역질서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13일 무역센터에서 열린 'TPP 및 다자간 통상질서 변화가 한국 기업에 주는 시사점' 세미나는 미국 로펌 '화이트 앤 케이스(White & Case LLP)'의 두 변호사들의 입을 통해 새로운 각도에서 TPP를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다.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화이트 앤 케이스는 미국의 TPP 협상에도 참여하는 등 미국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 나선 데이비드 본드(David E. Bond) 변호사도 "발표를 통해 미국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는 그의 발언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미국 입장에선 여러 모로 유리한 TPP

2006년 퍼시픽 포(Pacific Four, 일명 P4)로

출범한 TPP는 2008년 미국의 참여로 본격화 됐고, 2013년 일본이 참여하며 미국과 아시아 측의 입장은 대변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 나선 데이비드 본드(David E. Bond) 변호사도 "발표를 통해 미국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는 그의 발언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TPP의 특징은 다양한 구성원에 있다. 선진국·중진국·개도국 등 소득수준이 다르고, 호주·뉴질랜드·미국처럼 농업강국이 있는가 하면, 베트남처럼 국영기업체제도 있고, 싱가포

르처럼 완전개방된 나라도 있고, 일본·베트남처럼 보호주의가 강한 나라도 있다.

2013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TPP 참여국은 전 세계 GDP의 38%, 전 세계 교역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결성될 경우 세계 최대의 경제블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계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도하 라운드(Doha Round) 협상의 지지부진으로 "도하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 대안이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로펌 '화이트 앤 케이스(White & Case LLP)'는 TPP 협상에도 참여하고 있어, 세미나를 통해 미국 시각에서 본 TPP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발표에 나선 데이비드 본드 변호사(왼쪽)와 브렌дан 맥기번 변호사(오른쪽).

TPP인데, 미국은 이미 호주, 캐나다, 칠레, 멕시코, 페루, 싱가포르 등 TPP 참여국 중 6개국과 FTA를 맺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TPP를 잘 이끌면 된다는 논리다. 또한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가 20년이 지나면서 업그레이드 협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TPP가 체결되면 NAFTA 재협상은 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미국 입장에서 TPP는 아시아 중심 정책을 펴나가는 데 중요한 중심축(pivot)이 될 수 있고, 중국이 포함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

한편 TPP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농업시장 개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개방, 그리고 섬유시장 접근성이다. 특히 농업과 자동차 문제는 미국과 일본의 협의 과정에서 불거져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상품무역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노동, 환경, 국영기업 문제, 통관절차 간소화, 시장접근성 등 여

러 분야 협상도 진행 중인데, 특히 노동규범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입장 차이가 보이는 부분이다.

미국과 일본의 협의가 교착 상태인데, 이는 일본이 특정 민감품목(낙농·유제품·쌀)에 대해 '10년 내 관세철폐(일반적으로 '시장개방'의 기준)' 예외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과의 선례를 남길 경우 현재 EU와 협상 진행 중인 범대서양무역동반자협정(TTIP)에서 EU에서도 같은 요구를 들어줘야

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민간단체들에서는 "TPP에서 일본을 제외하자"라는 발언까지 나오기도 했다.

인도의 TFA 탈퇴로 WTO 신뢰 추락

한국은 최근 호주, 캐나다 등과 FTA를 체결했고, 뉴질랜드와는 FTA 협상을 하는 등 TPP 가입을 위한 토대가 잘 마련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미국 의회에서는 한·미 FTA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어 변수다. 지난 7월 29일 미국 상원의 재정 소위원회 공청회에서는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 시 한·미 FTA 관세인 하로는 충분하지 않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자동차시장이다. 연비와 이산화탄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낙농업계에서는 한·EU FTA의 지리적표시제 때문에 한국으로의 수출이 어렵다

는 호소가 제기되고 있다. 한·EU FTA의 지리적표시제는 '체다치즈'의 경우 실제 영국 체다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은 '체다치즈'라고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어 연단에 나선 브렌던 맥기번(Brendan McGivern) 변호사는 '기술무역장벽 동향과 한국기업의 대응 전략' '최근 복수국간 협정 추진 동향과 한국의 통상환경 변화 전망'을 연이어 발표했다. 기술무역장벽과 관련해서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출범 이후 선진국의 관세율은 평균 3%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자국 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은 제기되므로 비관세장벽을 생각해내게 됐다"며 "상대국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이의제기는 '비례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자국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 특별히 차별을 받는지가 관건이다"고 설명했다. 복수국협정과 관련해선 정부조달협정(GPA), 무역원활화협정(TFA), 정보기술협정(ITA), 환경물자협정(EGA), 서비스교역협정(TISA) 등의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TFA의 경우 지난 해 발리에서 151개국이 이 협정에 동의해 타결이 이뤄졌는데, 이후 인도가 자국 식량안보를 이유로 탈퇴 선언을 했고, 올해 7월 31일 비준 시점이 지나가버린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맥기번 변호사는 "1948년 이후 협상이 타결된 이후 어떤 나라도 이탈한 경우가 없는데, WTO의 신뢰성이 무너진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❶

TPP 경과

- 2006년 P4(Pacific 4: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결성.
- 2008년 호주, 페루, 미국, 베트남 참여. 실질 교섭 시작
- 2010년 말레이시아 참여.
- 2012년 멕시코, 캐나다 참여.
- 2013년 일본 참여. 한국 '관심표명' 발표.

원산지관리시스템 확충을 도와드립니다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원산지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중견기업 등에 원산지관리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 희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내용** FTA-Korea(KTNET), FTA-PASS(국제원산지 정보원) 무료 설치 및 컨설팅
※농수산식품 분야의 FTA 원산지판정기준 등이 반영된 '농수산식품 특화 FTA-Korea 원산지관리시스템'을 2014년 말 지원 예정
- **신청·접수**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국제원산지정보원에 직접 연락해 신청 양식에 따라 신청
- **문의처** KTNET 엄기석 팀장 02-6000-2030
국제원산지정보원 박성만 팀장 031-6000-722

ERP와 원산지관리시스템 연계 지원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ERP(전자적 자원관리시스템)와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표준형 범용모듈을 보급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 희망 중소기업
- **지원 내용**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FTA 원산지 관리 도모를 위한 시스템 구축 지원

원산지증명(확인)시스템 구축 지원 유형

지원 유형	지원 내용	지원 조건
서버 일체형	1인용 PC형을 다중 사용자용 서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지원	최대 700만 원 (50% 이내)
정보시스템 연계형	ERP 등 정보시스템과 FTA-PASS, FTA-Korea 연계모듈 구축 지원	최대 1,000만 원 (50% 이내)

※정보시스템 연계형은 ERP 등 경영정보시스템 기보유 기업에 한함.

- **신청·접수** 중소기업청 소관 과에 직접 연락해 신청양식에 따라 신청
- **문의처**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042-481-4405

원산지관리시스템이란?

기업의 일반 업무 처리에서 추출한 원산지에 관련된 정보(구매, 원가, 판매 등)를 활용해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해 일련의 FTA원산지업무 처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

- 최종 수출업체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
- 부품 공급업체는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

커지는 아세안 시장과 FTA

Growing ASEAN Market and FTA



10월 22일 부산시청 후문 국가광장에서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2월 11~12일·부산)' D-50일을 기념해 서병수 부산시장 등 25개 기관 대표들이 태극기, 아세안 회원국기, 아세안기 등 12개의 깃발을 게양대에 올리고 있다.

10

아세안 시장과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의 필요성

12

한·베트남
경제교류
및 FTA 전망

14

한·인도네시아
FTA 추진
현황과 전망

16

협상준비 중인
한·말레이시아 FTA의
현황과 전망

아세안 시장과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의 필요성

중국 이은 2대 교역 대상으로 부상... FTA 업그레이드로 긴밀한 협력 구축해야

아세안 시장은 저임금, 풍부한 천연자원, 높은 성장을 등의 잠재력으로 인해 한국의 주요 신증지역으로 주목받아왔다. 한국기업들의 아세안 진출 초기인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아세안 지역의 저임금을 활용하기 위해 섬유의류 부문의 우회수출기지로 각광받았다. 이후 아세안의 빠른 경제성장과 시장 잠재력을 염두한 일본, 기술 집약적인 투자도 점차 증가해 한국기업들의 주요 투자처로 변모했다.



아세안은 한국경제에 중국에 이은 2대 교역국, 주요 투자처로의 부상, 한국의 최대 공적개발원조 대상, 지역통합의 중심적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월 27일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린 2014 아세안 축제의 모습.

아세안이 한국경제에 가지는 중요성은 무역, 직접투자, 개발협력, 지역통합 등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주요 무역지대로의 중요성이다. 한국의 대(對) 아세안 무역은 2013년 기준 수출 820억 달러, 수입 533억 달러 규모를 기록해, 한국 입장에서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2위 무역 대상국이다. 최근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대상국으로 부상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아세안이 한국의 전통적인 주요 무역대상국인 미국, 일본, EU 등을 제치고 2위 무역대상국으

로 부상한 점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으나 이제는 주요 무역지대로서의 중요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아세안 무역을 성질별로 분석하면 수출의 경우 90% 이상이 원자재와 자본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입에서도 약 84%의 비중이 원자재 및 자본재로 구성되어 있어 한·아세안 무역이 산업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무역관계를 미루어 봤을 때 산업네트워크 심화를 바탕으로 향후 한·아세안 교역이 규모가 증진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주요 투자처로 자리매김, 아세안 위상도 급부상

둘째로, 아세안이 한국의 주요 투자처로 부상한 점이다. 2014년 상반기까지의 한국의 국별 직접투자 구성을 살펴보면 실투자액 기준으로는 미국(533억 달러), 중국(474억 달러), 아세안(384억 달러), EU(374억 달러) 순으로 아세안이 3위이나, 투자 신청액 기준으로는 미국(742억 달러), 아세안(651억 달러), 중국(636억 달러), EU(472억 달러)로 2위를 기록했다.

한편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를 업종별로 세분화해서 분석하면 제조업에 44%, 광업에 19%가 집중되었으며, 나머지 도소매업, 금융업, 부동산업 등 업종들은 10% 미만이다. 한국 입장에서 아세안이 미국, 중국 등과 경쟁하는 한국의 주요 투자처로 부상한 점과 제조업, 광업 등 산업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투자 형태를 가지고 있음은 향후 양자간 경제협력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는 개발협력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이다. 한국은 원조를 받던 최빈개도국에서 출발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해 원조 공여국의 위치에 달한 유일한 국가이다. 이러한 한국의 발전 사례는 원조를 받고 있는 개도국들에게 모범적인 개발경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통계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ODA 중 약 30%에 달하는 최대 비중이 아세안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베트남의 경우 단일 국가로는 최대규모의 ODA가 집중되는 한국의 최대 개발협력 파트너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넷째는 주요 경제통합 논의에서의 아세안의 중심적인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역내 아세안+1(개별 국가) 혹은 아세안+3(한·중·일 공동) 형태의 경제통합 논의가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점은 물론이고,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 논의 과정에서 아세안의 중심적인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2015년 말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아세안 Economic Community) 출범이 다가오면서 '단일화 시장 및 생산기지(Single Market and Production Base)로서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낮은 활용률 제고, 추가 자유화 위해 업그레이드 필요

앞서 언급한 아세안 시장의 중요성 이외에도 자원개발 파트너, 서비스·소비재 시장으로의 잠재력, 한류의 중심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세안 시장의 중요성을 언급할 수 있으나 현재 한국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은 기존에 체결한 한·아세안 FTA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실질적인 효용 증대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아세안이 한국의 주요 교역 및 투자지대로 부상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문은 크게 활용률 증대 및 추가 자유화로 요약된다.

활용률 증대 부문의 경우 한·아세안 FTA의 2013년 기준 수입 활용률은 75.6%이나 수출 활용률이

한국경제에 있어 아세안의 중요성



38.7%로 다른 여타 FTA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¹⁾ 수출 활용률이 크게 낮은 것은 홍보부족 및 복잡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등이 주된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이는 자체 정보수집 및 FTA 활용·역량이 우수한 대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중견·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정보력과 역량이 충분치 못한 점이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견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아세안 FTA 활용 관련 교육·홍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²⁾

추가 자유화 부문은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추가 자유화 속도와 범위 확대에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이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한·아세안 FTA의 추가 자유화 이외에도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별국과 양자간 FTA 체결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❶

1) 제현정·정혜선(2014).『한·아세안 FTA, 끝나지 않은 여정』. 국제무역연구원, p. 11 참조.

2) 김한성(2014).『한·ASEAN FTA 업그레이드의 필요성과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p. 13 참조.



한·베트남 경제 교류 및 FTA 전망

한국 투자 급속히 증가…새로운 경제 파트너로 부상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2일 방한한 응웬 푸 쟁(Nguyen Phu Trong) 베트남 서기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베트남 FTA의 연내 타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베트남 FTA를 체결할 때 기존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의 교역, 투자 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두 나라의 경제통상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2014년 9월말 기준 한국의 대(對)베트남 투자는 3,983개의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 됐거나 진행 중이고, 누적 투자금액 면에서 일본에 이은 제2위 투자국이다.

산업별 외국인투자를 살펴보면 ①제조업(9,288건, 1,331억 달러), ②부동산경영(434건, 468억 달러), ③호텔 외식서비스(357건, 110억 달러), ④건설(1,124건, 109억 달러) 등의 순서다.

한국 투자, 섬유·신발에서 전자제품으로 확대

베트남의 대외교역 동향은 2013년 이전은 적자를 기록하다 2013년 이후 흑자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과의 교역은 매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해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2014년도 7월말 기준 베트남의 대(對)한국 수출은 36억 달러로, 미국(158억 달러), 중국(85.6억 달러), 일본(85.2억 달러)에 이은 4위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22억 달러로, 중국(236억 달러)에 이은 2위다.

2014년도(9월 기준) 베트남의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섬유·직물제품(155억 달러), 신발류(74억 달러)가 전통적인 주요 수출품목으로 자리 를 지키고 있지만, 2012년 이후 각종 전화기 및 부품(170억 달러), 전기전자 제품·부품(74억 달러)이 주요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수출품목 들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많이 이뤄진 분야와 일치한다. 양국 수교 이후 오랫동안 세아상역, 한세실 업, 한솔섬유, 창신아이엔씨, 태광실업, 화승 등 많은 한국 기업이 섬유와 신발 분야에 투자를 했고,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만큼 한국의 투자가 베트남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체결되면 수출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014년도 8월말 기준으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은 ①의류(11억 달러), ②신발(3억 달러), ③무선통신기기(2억 달러), ④목재류(2억 달러) 등의 순서다. 한국과의 FTA를 통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는 농수산물이다. 일례로 현재 베트남 최대의 수출 작물은 커피인데(2014년도 9월 기준 28억 달러), 올해 한국의 커피 수입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10월 22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생두와 원두 등 커피 수입증량이 9만9,372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가별로는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이 2만3,686톤으로 가장 컸다. 지난 5월부터 한국 국제협력단(KOICA)과 CJ그룹은 베트남 닌투언(Ninh Thuan)성에서 농업 관련 시설을 개선하고 농산물 생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2일 방한한 응웬 푸 쟁 베트남 서기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베트남 FTA의 연내 타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산 전 과정을 선진화하는 '신 새마을운동'을 시작했다. 한국산 작물을 파종해 베트남 농가는 수익을 올리고 CJ는 신뢰할 만한 해외 농산물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다. 양국간 FTA 체결은 이러한 농수산물의 교역 및 투자를 더욱 촉진할 것이다.

베트남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①기계·플랜트 및 부품(161억 달러), ②전자제품 및 컴퓨터(129억 달러), ③의류 원단(69억 달러), ④유류제품(61억 달러) 등의 순서다. 2014년도 8월말 기준으로, 베트남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은 ①반도체(20억 달러), ②무선통신기기(11억 달러), ③합성수지(7억 달러), ④편직물(6억 달러) 등의 순서다. 베트남은 산업재를 비롯한 많은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양국간 FTA는 한국 제조업체들의 대ベ트남 수출 증대에도 호재가 될 것이다.

인구 9300만…생산기지에서 소비시장으로 부상

베트남은 종래 대외 수출 제품을 생산하는 한국 제조업체들의 생산 및 수출 전진기지로서 각광을 받아 왔지만, 향후 미래시장으로서도 그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빠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인구 9300만 명인 베트남의 소비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베트남 전국 1인당 소비 지출액 증가율은 약 40%에 달하고 있고, 도시의 소비증가율은 이를 상회함을 감안하면, 향후 주

요 도시의 소비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0년 이상 한류의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중국제품에 대한 팽배한 불신은 한국 소비재의 베트남 진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 환경은 양국간 FTA를 통한 한국의 수출 증대를 낙관할 수 있는 요인이다.

한편 양국간 FTA는 상품 교역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의 서비스업종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은 국제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서비스업종의 시장 개방을 약속했으나, 아직 개방되지 않은 분야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개방된 분야라 할지라도 실제로 투자허가를 받는 데에는 행정 절차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미개방 분야와 행정상의 난관은 FTA 체결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0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신흥국과의 FTA 협상에서 통상 당국과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을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근 베트남과의 FTA 협상에서도 별도의 논의를 진행하는 등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에 도움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수료 인상이 쉽지 않은 국내 시장에서 금융회사가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선 결국 해외 진출을 시행할 수밖에 없고, 이미 많은 한국 제조업체들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은 금융회사가 진출하는 데에 최적의 시장이라 할 것이다.❶

대(對)베트남 국가별 외국인투자

순위	1988년 1월 1일~2014년 9월 20일 기준 누계			2014년 1월 1일~2014년 9월 20일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	신규 건수	신규 투자금액	증자금액
국가명						
일본	2,410	36,310	11,696	228	830	610
한국	3,983	33,430	10,289	374	2,573	985
싱가포르	1,310	31,033	8,180	65	640	436
대만	2,334	28,019	11,775	51	432	386

(단위: 백만USD)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한·인도네시아 CEPA 추진 현황과 전망

인도네시아 새정부 출범으로 협상 재개 기대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양국간 무역 자유화를 위한 공동연구를 2011년 5월 시작했고, 2012년 3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일반 자유무역협정(FTA) 보다 개방정도가 높은 포괄적경제협력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추진키로 하고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측에 주력 수출품의 관세인하를, 인도네시아는 한국기업들의 투자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포스코와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사인 크라카타우스틸이 손잡고 설립한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포스코 전경.

한·인도네시아 CEPA는 2012년 7월 자카르타에서 1차 협상을 개시한 이래 양국을 오가며 금년 2월 서울에서 7차 협상까지 개최했으나,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 지난해 양국간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연내 타결에 합의하는 등 조기타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현재로서는 협상재개 시기마저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최근 10월 20일부로 인도네시아의 새 행정부가 출범 한 만큼 협상에 새로운 추진력이 불기울 기대하면서 관련된 사항들을 점검해 본다.

인도네시아, 한국기업의 투자 보장 원해

우리측의 주요 관심사항은 고관세 분야인 자동차와 IT, 석유화학, 철강 등의 분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우리 쪽에서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투자진출을 약속하는 것이 되겠다.

품목군에 대한 관세는 상대적으로 높아 우리 수출 증대와 양국간 교역확대에 중요한 장애가 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측은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진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자원의존적인 구조를 벗어나 산업화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자국의 취약한 산업분야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투자진출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양국간의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시키는 방법은 인도네시아측이 고관세 분야인 자동차와 IT, 석유화학, 철강 등의 분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우리 쪽에서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투자진출을 약속하는 것이 되겠다.

그러나, 민간 기업의 투자에 대한 문제를 정부간 협상에서 약속한 사례도 없거니와 시장경제 논리에

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고민이 있다.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포스코와 롯데에서 이미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문제가 없으나, 자동차와 IT 분야가 협상타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투자진출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역장벽을 철폐할 경우, 한국의 경쟁력 있는 완제품이 수입되면서 자국 내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게 되고, 그에 따라 야기될 경제와 고용에 대한 타격과 산업화 지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들 분야의 관세가 인하되지 않는다면 협상을 추진할 실익이 적은 것이다.

인도네시아, FTA 체결로 역내 FTA 허브 추구

이러한 저간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오히려 더욱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간 교역액 500억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CEPA의 조기 타결이 절실히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양국간 교역은 자원에너지 분야에 치우쳐 기반이 취약한 상태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IT 등 우리 주력 품목의 수출 확대가 없이는 비전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나, 이를 품목에 대한 높은 관세(10~20%)가 교역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예를 보면 지난 2008년 경제협력협정(EPA)을 체결한 이후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은 2007년 65억 달러에서 2008년 151억 달러로 급증한 바 있고, 지난 해에는 192억 달러로까지 확대된 바 있다.

수혜품목들의 수출확대는 투자진출을 동반하기 마련이고, 이는 수출시장 이상으로 큰 프로젝트 시장에서의 수주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그 실행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수출과 대중소기업들의 동반진출이라는 더 큰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적 글로벌 전략지원에서도 동남아 시장, 특히 인도네시아는 당분간 세계경제 성장을 이끌어갈 새로운 축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역점을 두어 관리해야 할 핵심 시장이라는 점에서 공정한 경쟁의 틀을 한시바삐 구축해야 한다. 일본은 물론,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선점 경쟁에 뒤쳐져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 기업들 또한 현실적으로 물류비용을 비롯한



2012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7차례 협상이 진행되던 한·인도네시아 CEPA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교착된 상황이지만, 최근 인도네시아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협상이 협상 재개가 기대되고 있다. 사진은 10월 20일 취임식에서의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여러 가지 무역 비용이 발생해 투자진출이 없이는 거대한 잠재시장을 선점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고 경영전략을 조정해서라도 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측도 ASEAN경제공동체(AEC) 출범을 비롯해 주변국과 다양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거나 이미 체결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인 한국과의 협상이 지연될 경우 인근국가로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해 역내 경제 허브 역할을 강화하려는 전략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양국이 이러한 대승적인 전략적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을 보다 깊이 공유한다면 세부사항들을 보다 과감히 양보하면서 협상을 조기에 타결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인도네시아 측의 산업육성 전략과 아세안 중심전략(ASEAN Centrality)을 존중하면서, 이를 우리경제의 글로벌화와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역으로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의 투자 요구를 계기로 전반적인 투자 진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아세안 시장 진출과 우리 경제의 글로벌화를 촉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이해관계가 큰 전통적 분야에서는 적절히 양보하면서 서비스, R&D와 같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분야의 진출을 확대함으로써 유리한 분업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전략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통상협상도 국가의 산업정책과 연계되는 측면보다도 기업들의 글로벌화 전략을 지원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민관의 전략 공유와 협력이 중요하고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



협상준비 중인 한·말레이시아 FTA의 현황과 전망

한류로 한국 호감도 급상승... FTA로 투자 확대 기대

2007년 6월 1일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아세안 회원국인 말레이시아와 한국은 FTA를 통해 제한적인 수혜를 누리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바이오, 서비스, 자동차, 철강, 화학과 같은 특정 산업에 강점을 갖고 있고, 한국은 기술집약적인 시도들을 하고 있어 양국의 보다 긴밀한 경제협력의 동기가 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기업들은 말레이시아에서 화학, 전기·전자, 의료기기, 재생에너지 등과 같은 분야에서 투자 기회를 찾는 데 열심이다. 그래서 현재 양국 교역 셋터의 확대는 투자 환경뿐만 아니라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양자 관계를 더욱 증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2012년 한·말레이시아 FTA를 위한 공동연구가 시작된 이래 양국은 상호 투자 집행 등 FTA 체결에 대해 진지하게 고심하고 있다. 최근 말레이시아의 산업 통상부 장관이 서울을 방문한 것은 한국이 교역·투자 분야에서 중요한 경제 파트너임을 보여주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제규모는 약 3,000억 달러(3,124억 달러—2013년 IMF로), 한국은 2009년부터 금년 5월



1인당 GDP 1만 달러가 넘는 말레이시아는 한류 열풍과 더불어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골든 디스크 어워즈 공연에 참여 중인 한국 걸그룹 포미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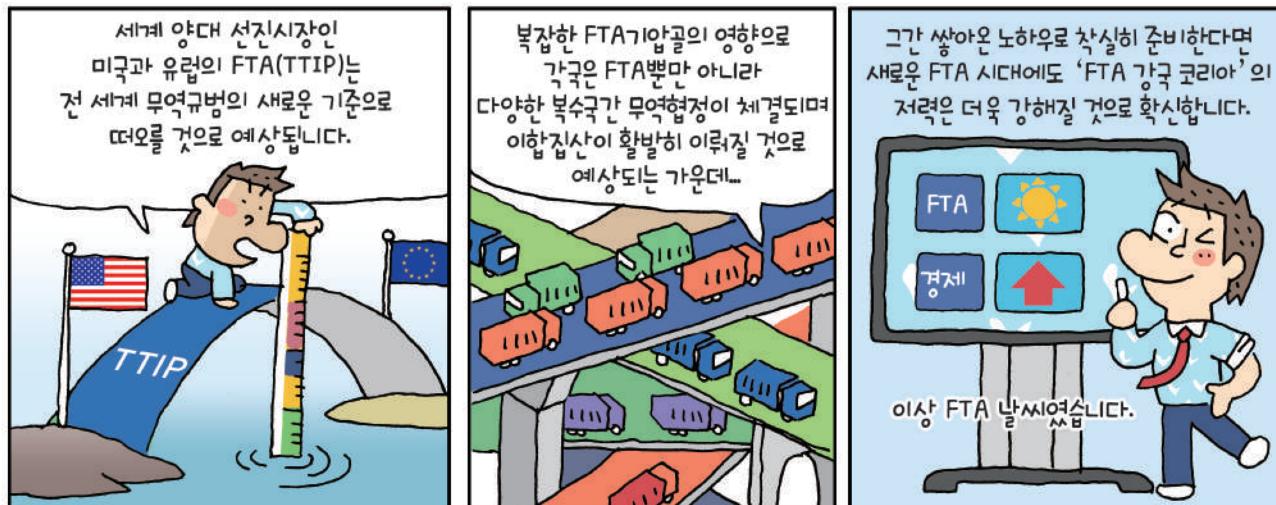
까지 말레이시아에 40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는 매우 큰 폭의 증가세로 향후 더욱 늘어날 것이다.

한류와 더불어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투자 증가

문화·엔터테인먼트의 면에서는,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2010년 무렵 동남아시아를 강타했다.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對)말레이시아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냈다. 이런 이유로 많은 한국 식당, 카페, 문화센터를 쿠알라룸푸르 또는 여타 지역을 포함한 말레이시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최근 커피 프랜차이즈인 '카페베네'가 중심기에 생겼는데, '러닝맨'에 출연한 이광수가 대변인으로 나서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한 점점 많은 말레이시아인들이 해외 관광에 나설 때 한국을 선택하고 있고, 일부는 한국의 대학교, 대학원, 어학원으로 유학을 떠난다. 한국인들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말레이시아로 여행을 떠나고, 말레이시아의 공립·사립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는 선택을 하고 있다.

추가적인 양국 협력의 가능성은 매우 높은 가운데, 한·말레이시아 FTA가 체결되면 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양국 FTA는 현재의 정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 교역 분야에서 특히 양국 관계를 증진시킬 것이 확실하다. 양국은 현재 별도의 FTA 협상에 몰두하고 있어 한·말레이시아 FTA 체결은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가까운 장래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 ■

새로운 FTA 시대가 다가옵니다!



팜 후찌 주한 베트남 대사

“한·베트남 FTA 통해 양국 공동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 맞을 것”



주한 베트남 대사관은 서울 삼청동 감사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 도심에서 떨어진 곳이라 가을 정취에 싸인 대사관은 고즈넉하고 아늑한 산사(山寺) 같았다. 팜 후찌 주한 베트남 대사는 마당에서 취재진을 반가이 맞아 주었고, 시종일관 친절한 이웃 아저씨처럼 환대를 아끼지 않았다.



팜 후찌(Pham Huu Chi) 주한 베트남 대사는,

- 1958년생.
- 1981년 하노이 외무대학교 졸업(University of Diplomacy, Hanoi), 베트남 외교부 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
- 1986년 네덜란드 사회연구원(ISS) 국제관계학 대학원 졸업. 베트남 외교부 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
- 1988년 베트남 외교부 정책수립국.
- 1995년 주미 베트남 대사관 1등 서기관.
- 1998년 제6차 ASEAN 서밋 테스크포스 부국장.
- 1999년 베트남 외교부 정책수립국 부국장.
- 2000년 베트남 외교부 아세안국 부국장.
- 2005년 주한 베트남 대사관 공사, 부대사.
- 2009년 베트남 외교부 정책수립국 국장.
- 2013년 주한 베트남 대사관 대사(현).

한국엔 언제 오셨습니까? 그간 경험한 한국 생활은 어땠나요?

제2의 고향인 한국에 정확히 1년 전인 2013년 10월 24일 돌아왔습니다.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하는 이유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반 동안 공사, 부대사로 한국에서 근무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은 제가 베트남이 아닌 나라 중에서는 가장 오랜 기간을 근무한 곳입니다. 한국에 다시 돌아오니 아주 기쁘네요.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관계가 나날이, 광범위하게 발전하고 있고, 그러한 친밀함과 협조에 주한 베트남 대사로서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기쁩니다. 많은 한국의 친구들을 만나고 한국의 음식과 기후에 적응하고 좋아하게 되면서 한국에서의 삶은 점점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의 아들과 아내 또한 저와 함께 서울에서 지내면서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의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한국에 대한 애정이 듬뿍 느껴집니다. 베트남과 한국의 경제협력 현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1992년 양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양국의 경제 협력은 드라마틱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국 교역은 1992년 5억 달러(이하 USD)에서 2013년 267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양국의 지도자들은 2020년까지 양국 교역을 700만 달러까지 늘리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투자의 경우 한국은 베트남의 2대 외국인투자자로서 누적 투자액은 334억 달러에 달합니다. 또한 해외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경우, 한국은 베트남의 2대 원조국으로 2012~2015년 동안 12억 달러의 원조를 약정한 상태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친밀함을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는 양국간 직항기 운항회수로, 하루에 약 20편의 항공기가 서울·부산과 하노이·호치민·다낭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자간 관계가 충분히 굳건해지려면 인력의 이동이 더욱 많아야 할 것입니다.

양국은 이미 한·아세안 FTA를 통해 FTA를 맺은 상태입니다. 현재 협상 중인 한·베트남 FTA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알다시피 양국의 경제협력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급속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한 발전으로 인해 양국은 이제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의 글로벌한 경제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없애 교역과 투자의 자유로운 흐름을 만들어 더욱 큰 실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베트남과 한국은 이미 한·아세안 FTA에 서명한 바 있지만, 양국 국민의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교역 자유화에 대한 보장을 더욱 다질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무역구조를 갖고 있는데, 베트남과 한국 간의 양자간 FTA가 체결된다면 양국 간 교역과 투자에 있어서 새로운 긍울상을 목격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베트남 FTA가 맺어지면 베트남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한국은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국간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양자간 FTA가 어느 한 국가에게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일방적 이익은) 우리가 새로운 FTA 협상에 나설 때 접근했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FTA 협상을 할 때, 우리는 양자간 균형이 잡히도록 합의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FTA는 상호 제로섬(zero sum)이 아닌 원-원(win-win)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는 베트남과 한국 간 FTA는 양국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님도 저와 마찬가지로 FTA가 교역과 투자의 불필요한 장벽을 없애 양국의 경제협력을 더욱 증진시키라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봅니다. 양국의 소비자들은 더욱 많은 선택의 기회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양국 경제가 글로벌 공급망(supply chain)에서 경쟁적 관계보다는 보완적 관계가 됨으로써 보다 밀접한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트남과 한국은 지금 매우 활발한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한 긴밀한 관계를 통해 양국은 공동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❶



라틴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의 TPP 협상 참여 원인 분석

미국 시장 의존도 높아... 아시아 국가와의 경합 '발등의 불'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12개국이 협상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2005년 4개국 참여),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2008년 4개국 참여), 말레이시아(2010년 참여), 멕시코, 캐나다(2012년 2개국 참여), 일본(2013년 참여), 그리고 현재는 한국과 대만 등이 이 협정에 대한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

TPP 협상은 2010년 이후 무려 20회가 넘는 라운드테이블 방식의 공식협상을 벌여오고 있지만 협상은 쉽게 종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협상 의제와 이슈를 둘러싼 협상국들 사이의 합의가 도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본에 대해 농업 및 자동차 부문에 대한 높은 관세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과 이를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일본과의 갈등¹⁾, 미국과 다른 협상국들(호주) 사이 서로 다른 투자자 분쟁 메커니즘 문제, 향후 태평양-아시아 지역 중심의 회원국들 사이 원활한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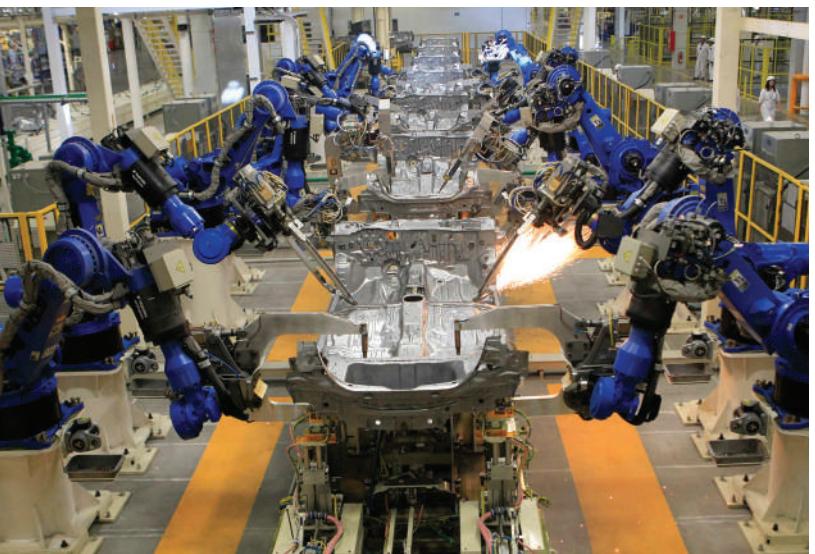
책 자문과 제도적 조정을 담당할 TPP의 공식기구와 역할 미 확정 등은 주요 장애 요소들이다.

이처럼 현재 협상 진행 상황에서 내재한 문제들과 많은 미래 도전이 여전히 상존해 TPP의 발전 한계 분석을 뒤로하고, 초창기부터(2005년 칠레) 중심에서 긍정적인 그리고 메가톤급인 자유무역 협상참여 및 무역개방의 속도를 내 오고 있는 라틴아메리카-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경우, 왜 TPP 협상에 적극성을 띠어 오고 있는지. 그리고 단순한 무역창출 효과를 넘어 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협상 참여 강화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중앙아메리카 수출의 40%는 미국행, 멕시코는 80%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우 대륙별·지역별 무역관계를 고찰해 보면, 이 지역 국가들의 적극적인 TPP 협상 참여와 활용은 현 시점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무역보다는 오히려 미국·유럽·남미 지역들과의 무역관계가 실질적으로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1970년대 이후부터 FTA를 활용해 수출선 다변화 전략을 주요 무역정책으로 이행해 온 칠레의 경우는 예외로 하더라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실질적인 수출 파트너(혹은 수출 선호 지역)는 미국과 EU다. 예를 들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일본,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권에 대한 방어적 전략으로 TP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진은 멕시코 셀라야의 혼다자동차 생산공장.



어 EU로의 총수출은 12.5%로 아시아의 4.1%에 비해 3배 차이를 보인다(2013년 기준). 멕시코, 콜롬비아 그리고 중앙아메리카 지역의 거의 40%에 달하는 수출은 미국이며 단일 국가인 멕시코의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80%에 육박한다.

콜롬비아를 제외하고 TPP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칠레, 페루, 멕시코의 전략은 미래 시장 확보 및 무역 확대 논리를 기반으로 APEC 경제권에 속한 아시아-태평양 TPP 파트너 국가들과 자유무역 확대는 물론, 라틴아메리카 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들(예를 들어, 중앙아메리카(멕시코·파나마 FTA 협상 중), 콜롬비아 그리고 에콰도르 등)과의 자유무역을 확대해 간다는 취지가 강하다.

현재 협상 참여국들 간 양자 관계로 맺고 있는 다양한 FTA를 지역 혹은 경제공동체(TPP) 차원으로 확대 발전시켜, 개별국가 및 지역 공동체 차원의 가치사슬(Value Chains)을 증대시킴으로서 투입재 공급자 확대, 원산지 축적 등은 물론, 특혜관세 이점을 활용해 최종 수출 상품의 TPP 파트너 국가로의 용이한 접근을 위한 전략이다.

동아시아 국가들,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

특히 협상 원료와 더불어 일본,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베트남 등의 미국 시장 접근의 특혜에 대해, 말하자면 이를 국가들이 라틴아메리카 협상 참여 국가들에 새로운 경쟁 국가로 등장하면서 발생 가능한 관세 특혜 침식을 보완하는 방어적 전략으로 적극적인 TPP 협상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맺은 혹은 현재 협상 진행 중인 다양한 FTA를 보완 개선하거나 혹은 업데이트를 위해 TPP에 적극 참여를 강화해 오고 있기도 하며(원산지 규정, 무역 구제의 규정 혹은 무역 갈등 해결 메커니즘 개선 등), 새로운 영역과 분야(중소기업, 교육, 연구, 과학과 기술, 등)에 대한 도전과 상호협력 증진 차원에서 참여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라틴아메리카-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대부분의 중미 국가들 그리고 콜롬비아의 경우는 현재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 중인 칠레, 페루 그리고 멕시코와 미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라도 TPP 협상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❶

1) 2014년 10월 현재, 일본은 TPP 타결 조건으로 쌀, 보리, 소·돼지고기, 유제품, 설탕 등 5개 품목의 관세 유지를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대폭적인 관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Case Study 멕시코와 TPP

칠레·페루·베트남·말레이시아와의 저임금 생산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 참여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TPP 협상 참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사례는 규모(인구 1억1,000만 명)나 영향력(1994년 NAFTA 회원국) 면에서 멕시코의 TPP 협상 참여이다. 참여 성격이 상당히 '방어적' 측면이 강하다. 특히 TPP 협상에 참여 중인 저임금 생산 구조를 가진 베트남(섬유)과 말레이시아(기계류)와의 미국 시장 진출 경쟁에서 점유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방어적 논리가 멕시코를 적극적인 TPP 협상 참여국으로 만들었다.

멕시코는 또한 다른 라틴아메리카 역내 국가들로 TPP 참여국들인 칠레와 페루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2012년 늦게나마 선택의 여지없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물론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멕시코의 수출시장 확대, 무역의 다변화 전략이 참여의 장기적인 목표(현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낮은 수출량)가 되었지만 초기의 방어적 전략은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다.

멕시코의 TPP 참여 원인 분석에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2013년부터 권력을 잡은 현 집권 여당(PRI: 멕시코 제도혁명당)의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내 경제사회 개혁(노동규제, 교육, 텔레커뮤니케이션, 특히 에너지 분야 개혁) 의지의 반영과 이러한 개혁을 통해 향후 중국 등 다른 국가들과 노동, 상품, 서비스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간다는 일종의 '새로운 술은 새 부대에(거의 20년이 지난 NAFTA 보다는 새로운 TPP 참여를 통해)' 전략을 구사하는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기존 NAFTA와는 달리 TPP 협상을 통해 멕시코는 새로운 노동 및 환경 규정, 지적 재산권 보호, 민간 및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새로운 기회 제공이라는 논리가 협상 참여에 중요 논리가 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TPP 협상 과정은 멕시코의 경우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무역의 다변화 및 멕시코 상품과 투자에서 국제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다. 특히 이러한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상 테이블에서 멕시코의 이익을 조율해 내고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물론 미래 경쟁국들로부터 양보를 얻어야 하는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도 요구되고 있다.



2014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가격경쟁력 커지니 수출 '쑥쑥'... FTA는 해외진출 도우미

지난 10월 16일 무역센터에서 '2014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이하 FTA 활용 경진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흔히 FTA의 효과는 '수출 몇 % 증가'라는 식으로 막연하게 인지하고 있지만, 과연 실제로 기업들의 수출 증대에 효과가 있는지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FTA 활용 경진대회에서는 FTA가 기업 수출의 도우미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확인하는 자리였다.



지난 10월 16일 무역센터에서 개최된 '2014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본전 진출 12개팀(기업 부문 9개, 학생 부문 3개)의 열띤 경쟁이 벌어졌다.

2014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내역

수상(상금)	기업·팀	지역	제품	활용 FTA	제목
기업 부문					
대상(400만 원)	송이실업	대구	기능성 섬유	미국, 터키	위기의 섬유, FTA 파고 넘어 세계로 비상
	양양	포천	발포와인	미국	FTA를 통한 세계적 진출
	대창특수기계	대전	계란선별기·세척기	아세안	계란이 웠어요, FTA 계란이 웠어요!
	광진원텍	부산	시트히터·통풍시트	미국, EU	FTA 활용?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끝!
	제다	경산	자동차용 배선	EU, 칠레	자체 FTA 전산 프로그램 개발과 원산지관리로 매출증가와 고용증대
최우수상 (각 200만 원)	위너콤	김해	자동차용 안테나	미국, EU, 인도, 터키	튼튼한 뿌리로 좋은 FTA 열매 결실 맺다
	조이포라이프	시흥	욕실용 샤워헤드	미국, EU, 인도, 아세안	벼랑 끝, FTA를 만나다
	신호	시흥	플라스틱 사출 금형	인도	FTA를 만나 인도시장의 청신호를 밝히다
	팅크웨어	판교	자동차용 블랙박스	미국, EU	FTA, 수출의 Navigation(내비게이션)
우수상 (각 150만 원)	백제교역	서울	EDM 머신	EU	소기업, 협력사와 협심하여 EU의 채찍을 이겨내다
	대동	안산	자동차부품	미국, EU, 아세안 등	Supply Chain(서플라이 체인) 관리를 통한 상생
	디카팩	원주	휴대폰 방수케이스	미국, EU, 아세안	FTA를 활용하여 수출 증대를 이룬 주디카팩
	신영산업	정읍	조립용 컨테이너	아세안	FTA 활용을 통해 새로운 아이템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휴먼웰	대구	조미김, 홍삼제조기	미국, 아세안	내수부진을 FTA로 돌파하다
	동해기계항공	공주	고소작업차	아세안	FTA, 수출을 올려주는 사다리차
학생 부문					
대상(150만 원)	부산대학교	부산	지방성형 초음파기	콜롬비아	남미(南美)에 파견된 미(美)사절단
	최우수상 (각 100만 원)	청주대학교	청주	애견용 기저귀	미국
	경북대학교	대구	국산 쌀국수	중국	수출농업의 서막을 올리는 한·중 FTA

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중소기업청·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대회는 지난 7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 공모를 받아, 9월 15~19일 심사를 거친 뒤 9월 25일 본선진출자들을 선정했다. FTA무역종합센터·지역FTA활용지원센터·지방중소기업청·지역세관 등에서 발굴한 FTA 활용 우수사례 109건이 접수됐고, 대학생들은 총 9팀이 공모했다.

총 118건 공모…15개 기업, 3개 학생팀 수상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사전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당일 발표 점수까지 합산해 현장에서 수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시도했다. 수상자가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의 사례 발표는 다소 김이 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으나, 이번 대회의 참가자와 가족·동료들은 다른 기업들의 사례에 귀를 쫓긋 세우는 모습이었다.

영예의 대상(상금 400만 원)은 대구에 위치한 섬유업체 송이실업에게 돌아갔다. 섬유의 경우 한·미 FTA에서 원산지규정이 가장 까다로운 품목으로 원사까지 역내에서 생산되어야 역내산으로 인정(yarn-forward rule)된다. 송이실업은 기존에 생산하던 합성필라멘트직물(장섬유)의 미국수출관세가 올해 10.4%(2012년 14.9%에서 2021년 0%로 단계적 철폐) 임을 감안해 재료비가 조금 더 드는 합성스테이플직물(단섬유)을 신제

품으로 개발해 수출관세 0%를 적용받았다. 마찬가지로 올해 7%(2012년 10%에서 2021년 0%로 단계적 철폐) 수출관세인 합성필라멘트편직물 대신 비스코스레이온편직물을 새로 개발해 한·미 FTA 무관세 적용을 받았다. 또한 터키 수출 시 반덤핑관세 40%가 부과되던 PET직물을 대신해 신제품인 PET/Modal 교직물로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었다. 기존 제품의 FTA 활용에 그치지 않고, FTA 무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신제품까지 개발하는 등의 적극적 노력이 대상 수상의 이유로 꼽혔다.

최우수상(상금 각 200만 원)은 양양(포천·발포와인), 대창특수기계(대전·계란선별기 및 세척기), 광진원텍(부산·시트히터 및 통풍시트), 제다(경산·자동차용 배선) 등 4개 업체가 수상했다. 우수상(상금 각 150만 원)은 위너콤(김해·자동차용 안테나), 조이포라이프(시흥·욕실용 샤워헤드), 신호(시흥·플라스틱 자동차부품 사출 금형), 킹크웨어(판교·자동차용 블랙박스) 등 4개 업체가 수상했다. 장려상(상금 각 50만 원)은 백제교역(서울·EDM 머신), 대동(안산·자동차부품), 디카팩(원주·휴대폰 및 디지털카메라 방수케이스), 신영산업(정읍·조립용 컨테이너 및 부분품), 휴먼웰(대구·조미김 및 홍삼제조기) 등 6개사가 수상했다.

한편 학생 부문은 부산대학교 팀(김민정·전현우·신현민-1페이지 인터뷰 참고)이 대상(상금 150만 원)을, 청주대학교 팀(박민현·유주희·이기관)과 경북대학교 팀(송민희)이 최우수상(상금 각 100만 원)을 수상했다. ■



2014 FTA 활용 경진대회 수상기업: 양양(최우수상 공동수상)

막걸리 대체할 효자상품, FTA로 미국 수출 청신호

2008년부터 3년 동안 뜨거웠던 막걸리 열풍이 2011년 정점을 찍은 뒤 서서히 식고 있다. 많은 막걸리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포천의 주류업체 양양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수출전용제품 개발로 위기를 헤쳐 나가고 있다. 이 회사는 한·미 FTA 활용을 위해 국내산 포도로 만든 와인을 사용하고 있어 지역농가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



1 막걸리로 유명한 포천의 조술당은 2011년 막걸리 열풍이 정점일 때 대체상품인 쏘아(Ssoa) 개발을 시작했고, 올해 미국에 연간 15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다(쏘아는 현재 조술당의 자회사 양양이 제조하고 있음). 2,3,4 쏘아(Ssoa)는 일본에서 인기를 모으는 '츄하이'라는 카테고리에서 힌트를 딴 제품으로 탄산과 과일향을 가미한 저도주를 말한다. 한국에는 생소한 제품이라 처음부터 수출시장을 염두에 두고 만든 제품이다. 포천 포도농가가 생산한 와인으로 만든 쏘아의 제조과정은 모두 자동화되어 있다.

포천은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막걸리의 고장이다. 지역 이름을 딴 막걸리 중에서 포천 막걸리는 특별히 떠오르는 곳이 없을 정도다. 2000년 설립된 조술당도 포천에 있는 많은 막걸리 제조업체 중의 하나다. 이 회사의 막걸리 매출 또한 2011년 27.4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6.6억 원(2012년), 21.4억 원(2013년)으로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다.

이 회사가 신제품 개발에 착수한 것은 매출이 정점을 찍고 있던 2011년이다. 매출은 최대를 기록하더 때였지만, 국내 시장은 경쟁자들이 크게 늘었고, 해외 시장은 바이어의 문의가 점차 줄어드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었다. 막걸리 유행이 지난 뒤를 대비해야 했다. 이에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 지금 판매되고 있는 '탄산과 과일향을 가미한 저도주'다.

아이디어는 수출을 위해 자주 오가던 일본시장에서 나왔다. 현재 일본에서 맥주보다 인기가 높은 '츄하이'라는 카테고리에 주목한 것이다.(인터넷에서 '츄하이'를 검색하면 엄청난 종류의 제품들을 확인할 수 있다.) 츄하이는 탄산과 과일향이 혼합된 약 5%(알코올 도수)의 저도주를 말한다. 어원에 대해서는 한국말로 '뽀뽀'에 해당하는 '츄츄'라는 일본말과 영어 '하이(high)'의 조어로 추정되고 있다. 도쿄에서는 '사와'라고도 불린다. 보드카 베이스인 츄하이와 달리 위스키 베이스는 '하이볼'이라고도 한다.

뉴질랜드 제품에 한·미 FTA 관세안하 효과로 승부

제품 개발, 마케팅은 모두 외주를 통해 이뤄졌다. 2011년부터 포천시농업기술센터, 대진대학교 식품영양학과와 함께 24개월만에 저도주 '쏘아(Ssoa)'를 개발했다. 레몬·자몽·망고·포도의 네 가지 맛이 최종 결정됐다. 브랜드와 패키지 또한 전문업체에 맡겼다. 막걸리만 만들던 지방 중소기업이 만든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제품은 꽤 세련됐다. 제품명은 젊은 여성이 '한 턱 쏘(쏘아)'라는 애교스런 말에서 따왔다. 제품, 브랜드와 동일성을 갖추기 위해 '양양(Ang Ang)'이라는 애교스런 사명을 가진 별도의 회사까지 설립했다.

한국에는 생소한 카테고리를 처음 시도한 쏘아는 일본의 츄하이와도 다르다. 츄하이는 보드카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주정(알코올)의 거친 맛이 느껴지지만, 쏘아는 포천에서 생산되는 포도로 만들어진 레드 와인을 베이스로 만들어 부드럽다.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지역 포도농가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다.

노력의 결실은 비교적 빨리 이뤄졌다. 올 4월 미국 1위 홈쇼핑업체 QVC의 주류유통 자회사인 'SWS(Southern Wine & Spirits)'에서 관심을 보인 것. 원래는 막걸리를 팔기 위해 접촉을 한 것인데, 쏘아는 '신제품이니 맛이나 한 번 보라'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막걸리는 뒤로 제쳐두고 쏘아에 관심을 보인 것이다. 이후 6월엔 SWS 관계자 3명이 포천의

공장을 방문하는 등 3차례의 미팅을 거친 뒤 지난 9월 월 300만 캔(1캔 =355ml) 공급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11월 18일 정식 계약을 앞두고 있다. 연간 약 150억 원 규모다.

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한·미 FTA다. 양양의 해외사업 담당 손성필 본부장은 "쏘아의 미국 수출관세는 '리터당 21.1센트'로 월 300만 캔 수출 시 바이어에게는 연 2.9억 원의 관세절감 효과가 있다"며 "당시 SWS는 뉴질랜드 업체와 양양의 두 업체를 비교하고 있었는데, 공급단가도 양양이 20원 더 싼 데다 FTA 활용 시 관세를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이 제품 선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산지기준 충족 위해 지역 포도농가와 협업

해당 제품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으로 정제수, 와인, 주정 등의 주재료 모두 최종 제품과 같은 22류에 속해 모두 역내산이어야 했다. 아직 계약 전이지만, 서울세관의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제 지원'을 통해 원산지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했다.

전체 원재료의 8.4%를 차지하는 와인의 경우 포천 지역에서 생산되는 포도로 만든 와인을 사용했다. 손 본부장은 "수입 와인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국내 영세 와인업체들은 가격경쟁이 안 된다. 와인을 판매 할 길이 많지 않지만, 쏘아를 통해 포도농가, 와인제조업체들도 함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직접 찾은 포천 양양 공장은 거의 자동화되어 있다. 단순반복작업은 모두 기계가 담당하고, 사람이 하는 일은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고 외관상 불량품을 걸러내는 것들이다. 저울과 X-레이 투시기를 통해 무게 미달과 이물질은 자동으로 걸러진다.

라인에서 갓 생산된 제품을 맛보았다. 탄산과 과일향 때문에 얼핏 탄산음료 같은 맛이 들지만, 와인의 깊은 맛이 뒤이어 허를 감돌았다. 손 본부장은 "20대 여성들 주 탓으로 했지만, 의외로 등산 간 40~50대 남자들이 소주에 타 먹거나, 40~50대 여성들이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다며 좋아하고 있다"며 소비자 반응을 전했다.

양양은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생산 외에 제품개발과 브랜드 네이밍, 패키지는 전문업체를 이용했다. 우수한 품질을 개발하고 원가를 절감하는 노력을 통해 제품의 경쟁력을 갖춘 가운데, FTA로 가격경쟁력을 갖추면서 해외 시장 개척이 용이해진 것이다. 기만히 있는데 FTA가 경쟁력을 가져다주는 않는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했다. 손 본부장은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준 포천시농업기술센터 이경훈 팀장, FTA 활용을 도와준 최은선 반장, 강민석 팀장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는 부탁을 남겼다.❷



2014 FTA 활용 경진대회 수상기업: 텁크웨어(우수상 공동수상) 치열한 해외 블랙박스 시장... FTA로 가격경쟁력 확보

팅크웨어는 차량용 내비게이션 및 블랙박스의 국내 1위 업체다. 그러나 2009~2010년 이후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면서 내비게이션 시장은 급속히 줄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차량용 블랙박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이 또한 언젠가는 국내시장이 포화 될 것이므로, 텁크웨어는 미리부터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는 중이다. 텁크웨어는 올해 미국 아마존, 베스트바이, 월마트 등에 입점하는 등 결실을 맺고 있다.



팅크웨어(Thinkware)는 '아이나비'라는 차량용 내비게이션으로 유명한 회사다. 1997년 설립돼 2000년 국내 최초로 PDA 기반 통신형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아이나비320'을 출시했으며, 지난 10년 동안 국내 내비게이션 시장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직원 453명, 매출 1,774억 원으로 중견기업에 속한다. 광명테크노파크에 위치한 공장 6곳에서 전량 국내생산하고 있다.

한때 승승장구하던 내비게이션 시장은 짐작하듯 하락세다. 텁크웨어의 내비게이션 매출 또한 3년 사이 절반 이상 줄었다. 그러나 차량용 블랙박스 매출이 3년 사이 3배 이상 늘어나며 회사 전체 매출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블랙박스 매출이 내비게이션 매출을 넘어서 정도다. 이 외에도 내비게이션에 적용된 터치스크린, UI(User Interface) 기술을 이용한 고객 맞춤형(B2B) 태블릿PC 수출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초 터키 중앙정부의 요청으로 교육용 태블릿PC를 납품했고, 중남미와 북미 등에도 상당한 진척을 이루고 있다.

내비게이션 하락세에 블랙박스로 해외시장 노크

수출지역 맵(map) 최적화가 필요한 내비게이션과 달리 블랙박스는 국내와 동일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수출에 국가별 제한이 없는 제품이라 텁크웨어는 내비게이션보다 적극적으로 블랙박스 수출에 나서고 있다. 양현석 해외사업부 부장은 "내비게이션은 기기도 좋아야 하지만 맵이 좋아야 하는데, 해외에서 좋은 맵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했다. 해외에도 맵은 있지만, 경쟁력을 갖추려면 사람이 직접 도로 곳곳을 다니면서 최적화 작업을 해야하는데, 국내만큼 쉽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블랙박스는 맵 없이 기기의 성능만으로 승부를 걸 수 있는 부분이다.

블랙박스는 해외에서는 대시캠(Dash Cam)으로 불린다. 대시보드에 부착하는 카메라는 뜻이다. 텁크웨어는 일단 북미시장 진출에 주력하고 있다. 시장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양 부장은 "우리 제품은 애프터 마켓용(완성된 차에 장착)이라 차량 등록대수가 곧 시장의 크기다. 미국 약 2억4,000만 대, 캐나다가 약 3,000만 대다. 미국 차량 등록대수의 2%만 터져도 500만 대다. 한국은 올 연말 약 2,000만 대가 예상되는데, 블랙박스 시장규모는 200만 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블랙박스 시장이 확대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일본에서 처음 개발된 블랙박스는 정작 일본에서는 인기를 얻지 못했다. 일본 운전자들의 철두철미한 안전운전 습관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일

본에서조차 블랙박스는 한국산 또는 대만산을 수입하고 있다. 그나마 택시나 트럭 등 영업용 차량에만 쓰이고 있다.

미국은 시장이 서서히 열리는 중이다. 그러나 한국만큼 급격하게 열리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 부장은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소비자들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 빠르지만, 미국은 땅이 넓고 시장이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꾸준히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베스트바이 계열인 퓨처샵 전국 129개점에 입점했으며, 월마트와 입점 계약을 맺어 올 11월부터 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아마존닷컴, 베스트바이닷컴 등 온라인 매장에 입점했고, 약 1,000개에 이르는 미국 내 베스트바이 오프라인 매장에도 입점을 추진 중이다.

해외 블랙박스 시장에서도 중국 제품의 추격이 시작됐지만, 아직은 중국 제품과의 차이는 유지되고 있다. 양 부장은 "가격만으로는 중국 제품을 이길 수 없다. 품질, 기능, 신뢰성으로 승부해야 한다. 중국제품은 영세업체들이 많은데, 대부분 애프터서비스가 안 된다. 텁크웨어가 입점한 업체들은 대부분 메이저 유통업체(Tier 1)들인데, 아직 중국제품은 진입이 쉽지 않다"고 얘기했다.

한·미 FTA 활용으로 2.1% 관세 인하 적용

팅크웨어는 몇 년간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하지 않았던 터라 올 5월 미국으로의 블랙박스 첫 선적 전에 한·미 FTA 활용을 미처 생각지 못했다. 그러나 바이어의 FTA 원산지증명서 요구로 급하게 8월 FTA무역종합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HS코드 재검토에서부터 담당자 교육 및 현장컨설팅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 끝에 올해 9월부터 미국 수출분에 한·미 FTA를 활용해 2.1%이던 수출관세를 0%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수출하던 HS코드 8543.70호를 국내외 품목분류사례를 재분석한 결과 HS 8525.80호로 수정할 수 있게 됐다. 해당 품목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으로 역내산으로 인정받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 FTA 활용 실무를 담당했던 서해진 해외사업부 대리는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관세사들이 너무 잘 도와줘서 큰 어려움 없이 한·미 FTA 활용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비결을 전했다.

한편 텁크웨어는 베네룩스 3국(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과 프랑스에 이어 연내 영국 양판점에 입점할 계획이다. 특히 한·EU FTA를 활용한 블랙박스의 관세인하 폭은 14%로 중국산과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❶

1 텁크웨어는 국내 차량용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시장 1위의 중견기업이지만, 국내 시장의 포화로 인한 매출 정체를 해외시장 진출로 풀고 있다. 사진은 텁크웨어 SD사업본부 해외사업부 사원들.

2,3 해당 국가 지도의 최적화 작업이 필요한 내비게이션과 달리 차량용 블랙박스는 기기 자체의 성능만으로 어느 국가에나 수출할 수 있어, 텁크웨어는 최근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유무역의 역사: ⑩양자간투자협정(BIT)

정책·제도의 불확실성 제거로 외국투자 이끌어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국내 진입한 외국인 기업들도 많아졌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우리기업들의 전 세계 시장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투자협정(Investment Treaty)은 협정을 맺는 국가들 간에 이미 이루어진 투자를 보호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그 중에서 두 나라 간에 체결하는 협정을 양자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이라 한다. BIT는 투자협정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600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BIT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먼저 투자의 설립 이후 단계에서 상대방 국가의 투자에 대한 비차별대우와 투자자산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투자보장협정이 있다. 이는 가장 전통적인 BIT로서 대부분의 BIT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또 다른 유형으로 투자의 설립 이전 단계에서부터 비차별 대우를 하는, 즉 투자 자유화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하는 협정이 있다. 이미 이뤄진 투자를 보장하는 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투자자유화의 내용까지 담고 있다는 점에서 더 발전적인 형태로 평가된다. 투자 자유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대표적 BIT로서 미국이 체결하는 BIT, 캐나다가 체결하는 BIT, 한일간 BIT 등이 있다.

01 투자 과실에 대한 자국 내 환원 의무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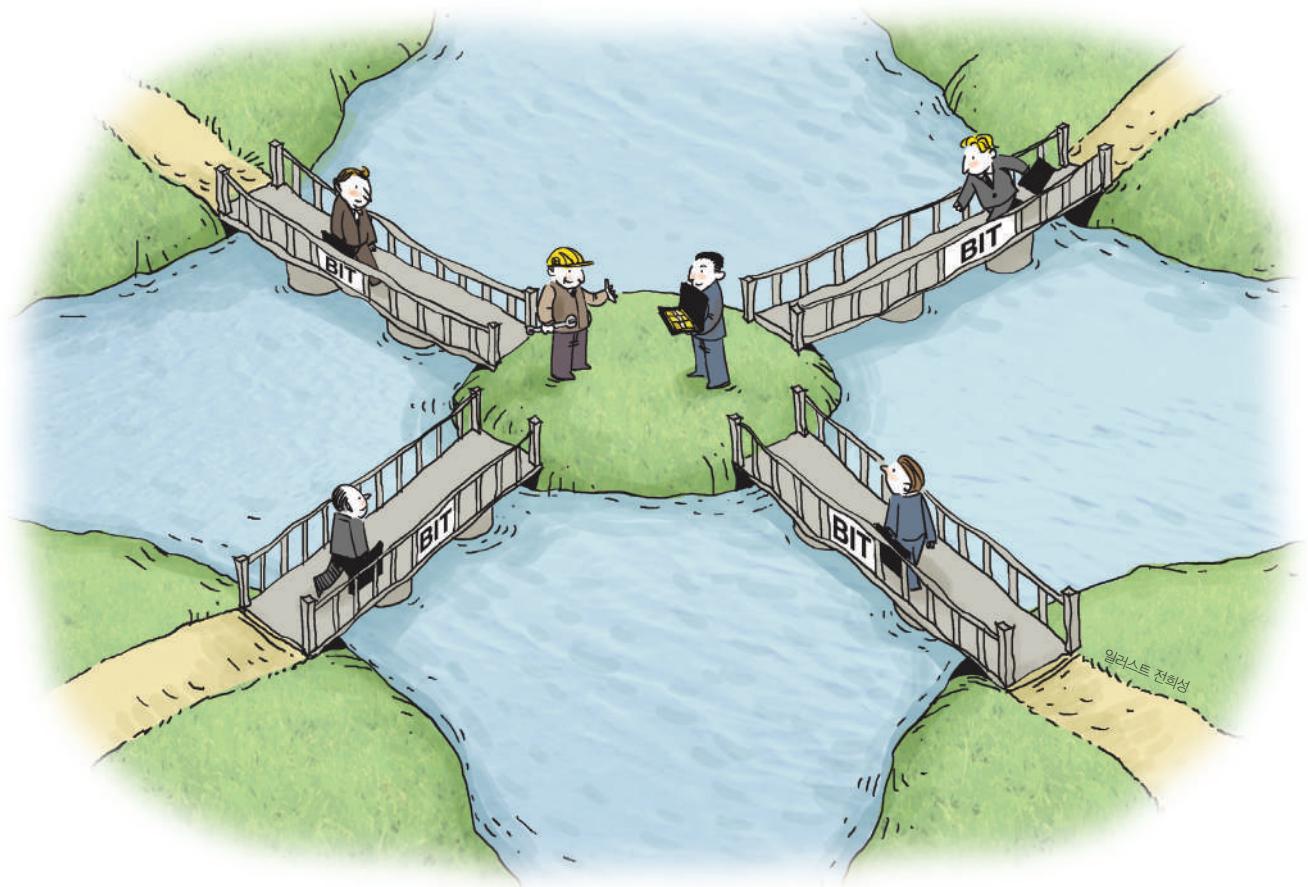
BIT의 이해를 돋기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체결된 BIT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양국은 투자가 성립되기 이전 단계부터 내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내국민대우 원칙). 즉, 기업설립 전 단계부터 내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투자자유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투자 유치국은 자국이 외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가장 좋은 대우를 상대국 투자자에게도 똑같이 부여해야 한다(최혜국대우 원칙).

공공목적을 위해 정부가 투자자의 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할 경우에는 국제법 기준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의 원금이나 이에 따른 과실의 국내외 송금도 보장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재화나 서비스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외국인투자자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국산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한편 투자자와 고위 경영자, 전문 기술자 등 핵심적인 직원들은 일시적으로 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 상대국에 입국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 분쟁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 유치국 국내법원을 거치지 않고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 국제 공인 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렇듯 다양한 규정을 통해 한국과 일본 양국의 투자자나 투자는 상대국 시장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한편, 최근 투자협정은 FTA의 일부 내용으로 포함되는 경향이 있다. 투자협정이 FTA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부터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모든 FTA가 투자협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NAFTA 모델에 기초해서 체결된 FTA는 보통 투자협정을 포함하고 있다. FTA 내의 투자협정은 투자보호뿐만 아니라 당연히 투자자유화에 관한 내용까지 담고 있다. 반면, 투자협정을 포함하지 않는 FTA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EU가 체결하는 FTA이다. 그렇다고 해서 EU가 체결한 FTA에 투자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EU의 FTA에는 자본이동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간의 자유로운 자본 이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투자보호와 같은 투자협정의 고유한 내용들은 담고 있지 않은데, 투자협정에 대해서 EU는 기본적으로 각 회원국이 별도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02 공공의 이익 보호 장치 도입도 확대 추세

세계 각국에서 체결되는 투자협정의 내용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규정 내용이 명료화·투명화되는 등 협정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투자보호 협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투자자유화를 포함하는 협정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도국들도 선진국들과 투자협정을 체결하면서 이처럼 높은 수준의 협정을 수용하는 추세이며, 개도국들 간에 체결하는 투자협정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공공의 이익 보호 차원에서 공공건강이나 안전, 환경, 노동 기준 등과 관련된 내용을 도입하는 경우도 확대되고 있다.

투자협정의 대표적인 효과로 투자 증진 효과를 들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투자협정은 투자자 보호나 효과적인 분쟁해결 장치 등을 통해 투자자가 예측하지 못한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기업들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기업들은 보다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 체결되는 투자협정들은 전통적인 투자보호 뿐만 아니라 투자자유화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투자 촉진 효과가 더욱 크다.

에거와 파퍼마이르(Peter Egger and Michael Pfaffenmayr, 2004)가 1982년부터 1997년까지 OECD 회원 19개국이 54개국과 체결한 BIT의 효과를 실증분석한 결과, BIT가 체결될 경우 체결국간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약 30% 증대되는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OECD(2006)는 1990~2004년간 데이터를 이용해 BIT의 효과를 분석했는데, BIT가 포함된 FTA가 체결될 경우 FDI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즉, FTA를 통해 양국간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투자자유화의 확대나 투자보호의 강화는 양국간 투자를 한층 더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현재 93개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지역 32개국, 일본, 중국, 태국 등 아시아 지역 17개국,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남아공 등 아프리카·중동 지역 26개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미주지역 18개국과도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93개국으로부터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 더불어 우리 기업들의 이들 국가들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도 촉진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❶

세계의 FTA: ⑩호주의 FTA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심으로 FTA 활발히 전개

호주는 최근 FTA 네트워크 확장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철광석 등 천연자원이 풍부할 뿐 아니라 자연환경에 이점을 가지고 있어 낙농 및 육우산업의 발달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최근에는 교역 확대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핵심에는 토니 애벗 총리가 있다. 지난 2013년 9월 선출된 애벗 총리는 FTA 추진을 공약으로 당선된 이후, 여러 국가와의 FTA 협상을 빠르게 추진해왔다. 그 결과 한국, 일본은 현재 호주와 FTA 서명 절차를 완료해 발효를 앞두고 있고, 조만간 중국과의 FTA 협상을 맺을 것으로 전망돼 주목을 끌고 있다.

뉴질랜드와 밀접한 관계 맺으며

FTA 네트워크 확대

호주의 FTA 추진은 뉴질랜드와의 FTA를 시초로 이뤄져 왔다. 현재도 영연방 국가에 속해 있는 양국은 과거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역사를 공유하고 있어 문화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연 및 기후환경이 비슷해 낙농업 강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워 오래전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FTA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인 1900년대 초반에도 양국 교역 시 서로 특혜관세를 제공하는 협정을 맺는 등 경제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졌던 것이다. 현재와 비슷한 성격의 FTA는 1966년에 이르러서야 체결에 이르렀다. 이때의 FTA는 당시 양국 간 교역액의 80%에 이르는 상품에

대한 관세와 수량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두 국가 간의 교류는 더욱 확대됐으며, 그 결과 1990년에 이르러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관세와 수량제한이 사라짐으로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이 가능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1983년 CER(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 경제긴밀화협정)이라는 협정을 통해 기존의 FTA를 확대·개정함으로써, 상품 분야로만 한정돼 있던 무역자유화 논의를 서비스 분야에까지 확대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렇듯 양국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오래전부터 경제 협력을 위해 애써왔다. 후에 호주는 ASEAN과 FTA를 맺었는데 이 때 호주가 ASEAN과 단독으로 FTA를 맺지 않고 뉴질랜드와 함께 호주·뉴질랜드·ASEAN FTA를 맺었다는 점은 양국의 협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싱가포르, 태국 등 아시아 중심 FTA 추진

호주가 다음으로 주목한 국가는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지역 자유무역의 대표주자로서 호주와도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다. 사실, 호주는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과는 다소 떨어져 있어 아시아와의 연관성을 단번에 떠올리기는 어렵지만 지도상으로 보면 호주는 동남아시아와 가깝게 위치한다. 특히 인도네시아와는 매우 근접해 있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호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라고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호주는 현재까지 맺은 7건의 FTA 가운데 5건을 아시아 국가와 맺고 있어, 아시아에 집중하려는 호주의 의도가 드러난다. 2003년 7월에는 싱가포르와 FTA를 발효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태국(2005년), 말레이시아(2010년) 등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 FTA를 확대해나갔다.

호주의 FTA 추진동향



발효

뉴질랜드 CER*(1983년 1월 상품협정, 1989년 1월 서비스협정)
싱가포르 FTA(2003년 7월)
미국 FTA(2005년 1월)
태국 FTA(2005년 1월)
칠레 FTA(2009년 3월)
뉴질랜드·아세안 FTA(2010년 1월)
말레이시아 FTA(2013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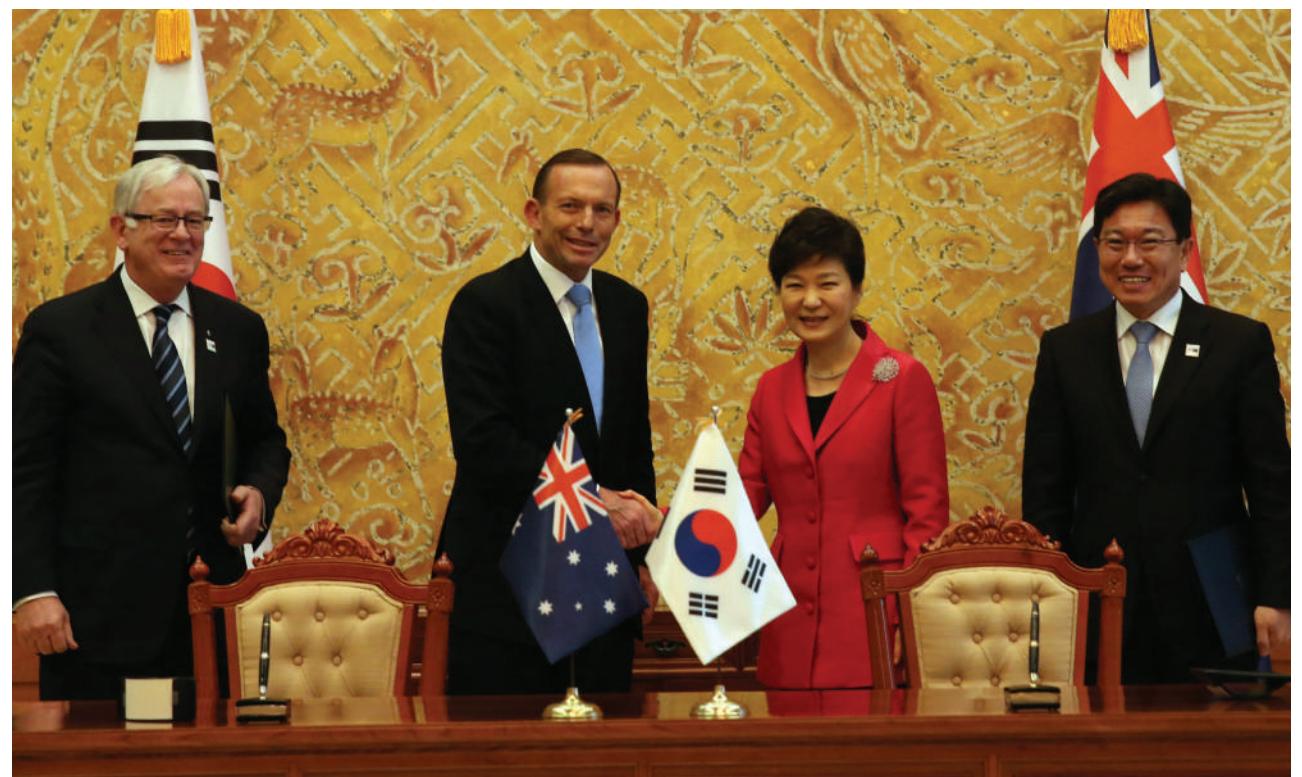
서명

한국 FTA(2014년 4월)
일본 FTA(2014년 7월)

협상중

중국 FTA, GCC FTA,
인도 CEPA, 인도네시아
CEPA, RCEP, TPP 등

*CER(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 경제긴밀화협정)



2013년 9월 당선된 토니 애벗 호주 총리는 부진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FTA 체결을 내세웠고, 한국, 중국, 일본과의 FTA를 1년 내에 타결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사진은 올해 4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호주 FTA 서명식 직후 악수를 나누는 애벗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

출해 일·호주 FTA 역시 발효를 위한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직 협상 단계에 있는 중국과의 FTA 역시 순조롭게 진행돼, 연내 타결이 유력하게 예상되며 시기적으로는 11월 호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타결시점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렇게 한·중·일 3국과의 FTA가 마무리되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추진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3년 총선을 앞두고 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못했던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FTA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호주는 2010년부터는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 협상에 참여하고 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로서 RCEP(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 양자 FTA 뿐 아니라 주변지역과의 경제통합 논의에서도 향후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기대된다.❶

지난 7월에는 일본과의 FTA 공식 서명절차를 완료하며 곧바로 의회 심의를 개시했고, 일본 측 역시 지난 10월 승인안을 국회에 제

실전 품목분류 사례 분석: ⑩가방, 지갑 등 가죽제품

핸드백 해외 직접구매 시 1,000달러 이하는 구매영수증으로 FTA관세혜택 받을 수 있어

항공·선박 등을 이용한 일반적인 수출입화물은 물론, 우리나라와 FTA 상대국을 오가는 여행자들이 상대국에서 구입한 휴대품에 대해서도 품목별 관세철폐 기준에 따라 FTA 특혜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유명 브랜드의 핸드백 등 가방과 지갑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과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미국 및 유럽으로부터 많이 구입하는 제품들 중 하나로, 한·미 FTA, 한·EU FTA 등 FTA의 발효로 8%의 관세가 사라진 제품이기도 하다.

한·미 FTA, 한·EU FTA로 8% 관세 사라져

가방은 기본적으로 물건을 넣어 들고 다니기에 간편하도록 만든 것으로,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트렁크, 화장품파우치, 필통에서부터 공구가방, 사진기케이스, 악기케이스, 종(錠)케이스, 안경케이스, 보석함 등의 각종 케이스류 및 쇼핑백, 에코백 등에 이르기까지 용도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가방 및 케이스류는 HS4202호에 분류된다. 특이한 것은 본래 HS42류는 가죽제품이 분류되는 곳이지만, HS4202호에는 가죽으로 만든 가방이나 케이스류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이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기타 다른 재료로 만든 것들도 포함돼 재질에 따라 각각 세분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가방 및 케이스 외에 특정 물품을 담을 수 있



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돼 있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며,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사진기케이스, 악기케이스, 총케이스 등의 경우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내용물이 분류되는 곳에 분류된다. 예를 들면, 주얼리와 주얼리케이스는 주얼리가 분류되는 HS7113호에, 전기면도기와 그 케이스는 전기면도기가 분류되는 HS8510호에, 바이올린과 케이스는 바이올린이 분류되는 HS9202호에 함께 분류된다.

이렇듯 계속 반복사용이 가능한 가방이 있는 반면, 위생적인 이유 등으로 한 번 쓰고 버려야 하는 쓰레기봉투, 비닐봉지 등 일회용 가방도 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반복적 사용이 불가능한 비닐봉지는 각종의 포장 또는 운반에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HS3923호에 분류되는데, 재질에 따라 폴리에틸렌수지제의 것은 HS3923.21호에, 폴리프로필렌수지제의 것은 HS3923.29호에 분류된다. 또한, 포장용에 적합한 종이 쇼핑백의 경우 HS4819.40호에 분류된다.

지갑 역시 가방류와 함께 HS4202호에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가죽이나 섬유재료로 만들어지는 지갑은 현금, 신용카드, 신분증, 명함 등과 같은 개인용품을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사용되는 케이스를 의미하며, 종류에 따라 장지갑, 중지갑, 반지갑, 머니클립, 카드지갑, 동전지갑 등이 있다. 다만, 지갑의 경우 HS4202호의 하위 세번에 따로 지갑이라는 품명

FTA로 관세가 없어진 가방 등을 인터넷 구매나 휴대물품으로 반입하는 경우 1,000달러까지는 현지에서 구입했다는 구매영수증만으로 FTA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1,000달러를 넘어야면 일반적인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이 제품이 역내산 제품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한·미 FTA)나 협정문상의 원산지신고문서 및 판매자의 이름과 서명, 판매장소, 거래일자 등(한·EU FTA)이 기재된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죽 소재의 여성용 핸드백(HS 4202.21)의 경우, 한·EU FTA에서는 HS 4단위 세변변경, 한·미 FTA에서는 HS 2단위 세변변경이 이루어지면 역내산으로 인정된다. 가죽 소재가 역내산이 아니어도 이를 잘라서 만드는 공정이 역내에서 이루어지면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시킨다는 의미다.

이 없고 HS4202.3호의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에 분류된다. 구체적으로는 사용 재료에 따라 가죽제품(HS4202.31), 플라스틱 및 방직용 섬유제품(HS4202.32), 그 밖의 제품(HS4202.39)으로 세분류되고 있다.

지갑 또한 수입 기본관세율이 8%이지만 FTA를 활용하는 경우 일부 제품에 대해 한·인도 CEPA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방 및 지갑 등 가죽제품의 원산지기준은 FTA별, 그리고 품목별로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명품 가방의 소재는 가죽인 경우가 많으므로 가죽 소재의 여성용 핸드백(HS 4202.21)으로 예를 들어 보면, 한·EU FTA에서는 HS코드 4 단위로부터의 변경을, 한·미 FTA에서는 HS 2단위로부터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역내산으로 인정된다. 쉽게 말해 가죽과 같은 소재가 역내산이 아니어도 이를 잘라서 가방을 만드는 공정이 역내에서 이루어지면 FTA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의미이다. 한·EU FTA 보다는 한·미 FTA의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 큰 차이는 없다.

유럽서 산 '메이드 인 차이나'는 FTA 적용 안 돼

유럽과 미국의 명품 브랜드 중 상당수가 중국에서 제조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제품들은 원칙적으로 FTA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FTA 체결 상대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더라도 해외여행자들이 국내면세점이나 제3국의 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은 FTA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FTA 협정에 따라 관세가 전면 철폐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등 관세를 제외한 수입세금은 부과된다.

우리나라는 보석, 귀금속제품,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등

고가 사치품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개당 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고급가방 및 고급지갑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기준 가격(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개별소비세로 부과된다. 또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FTA로 인해 관세가 전면 철폐된 가방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청기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인터넷 구매나 휴대물품으로 반입하는 경우 1,000달러까지는 현지에서 구입했다는 구매영수증만으로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1,000달러를 넘어야면 일반적인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이 제품이 역내산 제품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한·미 FTA)나 협정문상의 원산지신고문서 및 판매자의 이름과 서명, 판매장소, 거래일자 등(한·EU FTA)이 기재된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자들은 현지에서 각종 물건들을 구입할 때마다 구매영수증을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며, 총 구매금액의 1,000달러 초과 여부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FTA 체결대상국에서 생산된 물건에만 FTA 특혜관세가 적용되므로 상품 구입시 해당 제품에 FTA 대상국 가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 표시(예: Made in Italia)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한·EU FTA의 경우 6,000유로(대략 800만 원대)를 초과하는 고가상품은 현지 판매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번호까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해야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❷

사후검증 따라잡기: ⑩한·미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자료 구성II

제조공정·생산기록을 자세히, 간결하게 설명해야…

미국 세관(이하 CBP: The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검증요청에 대한 자료 준비 방법을 지난달에 이어 계속한다. 상담을 하다 보면 FTA 활용에 큰 문제가 없었음에도 CBP의 질의에 대한 초기 대응 미숙으로 원산지 불인정 통보를 받는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 사후검증에 대한 소명은 심사자가 쉽게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소개되는 검증 소명자료 예시는 FTA무역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fta1380.or.kr>→FTA활용→사후검증 대응)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5. 원산지 충족여부 증명(Certification of Origin)

CBP Form 28에서 주로 보이는 표현 중 'Certification of Origin' 이란 부분은 '원산지의 증명' 즉,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충족하여 한국 산임을 소명하라는 것이다.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자칭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원산지 판정에 적용한 원산지 결정기준, 제조공정 및 제조기록, BOM등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기술될 수밖에 없으며 관련 자료도 충분히 제시되어야 한다.

(1)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물품의 원산지 판정에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설명한다. 예를 들면, 6

단위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협정문 상에 나와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그대로 적어주고 뒷부분에 약자로 'CTSH(Change in Tariff Sub-Header)'로 기재하여 주는 것이 좋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간혹 'A 또는 B'의 형태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전체 결정기준을 모두 적고 판정에 사용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본 물품의 원산지 판정에 적용한 기준은 A이다'라고 기술한다.

- Criteria of the Origin Determination by UK FTA—
In accordance with Annex 6-A of UKFTA or GN33(o) of
HTSUS, products specific rules of subheading 8421.23
are as follows :
- A Change to Subheading 8421.11 through 8421.39
from any other Subheading. (CTSH)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원문은 섬유 및 의류의 경우 '협정문 4장의 부속서 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 외의 상품은 '협정문 6장의 부속서 나'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협정문을 직접 찾기 어려운 경우, 관세청 FTA포털이나 FTA무역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제조공정도 예시

제조공정도 2/2 (Manufacturing Process 2 of 2)

- 제품명(Description): Oil Filter (HS 8421.23)
- 모델규격(Model): KTC-01



작성일(Date): 2013. 10. 25

작성자(Declarer): KITA 오토모티브(주) 대리 박대리

※위 예시는 가상의 기업 'KITA 오토모티브(주)'의 사례이나, 품목 및 공정도는 실제의 사례를 사용했음.

(2) 제조공정 및 생산기록

①제조공정: 제품이 생산되는 전반적인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작성한다. 생산 순서에 따라 주요 공정명을 기재하고, 해당 공정에서 수행되는 작업을 설명한다. 되도록 공정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 상대방의 이해를 도울 수 있으므로 첨부하는 것을 권한다. 원재료가 몇 가지 안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 중간 생산물 등을 기재하여 명확히 해 주는 것이 좋다. 다만, 기계류 등 원재료를 나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생략한다.

②생산기록: '작업지시서'와 이 지시에 따라 생산이 이루어진 기록인

'생산일지'를 증빙 자료로 구성한다. 위 제조공정도의 '(4)조립' 공정을 예를 살펴보면, 중간생산품인 '프레스(Press) 부문품'과 기타 원재료인 하우징(Housing), 가스켓(gasket)을 조립하여 필터의 보디(body)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작업지시서'에는 보디(body) OO개를 생산하기 위해 출고되어야 하는 원재료 목록과 개수, 작업지시 일자, 완료 예정일자, 수행 공정 코드(또는 이름)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다.

작업지시서에 따라 조립라인(Assembly Line)이 가동된 이력(생산시간, 생산수량, 작업자, 검수자 등)을 함께 구성하면 '제조공정도→작업지시서→생산일지'간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 제조이력 증빙자료를 갖추게 된다.❶



최효찬의 인문학 강의: 남성은 왜 여성에 대해 불안해할까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집 떠난 남성의 불안심리의 원형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보다 약간 앞선 시기에 중국에서는 '시경'이 쓰였다. 호메로스의 작품이 서구 문학의 원형이라면 '시경'은 중국 최초의 시가총집이다. 동아시아 시가문학의 원형으로 꼽힌다. '일리아스'가 10년째 맞은 트로이 전쟁의 마지막 과정을 다루고 있다면 '오디세이아'는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10년 동안 트로이전쟁 후 이타카로 향하는 여정에서 다시 10년 동안 표류하며 겪는 모험과 왕비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를 다시 만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오디세우스, 아내를 시험하려 귀향 숨기고 거지로 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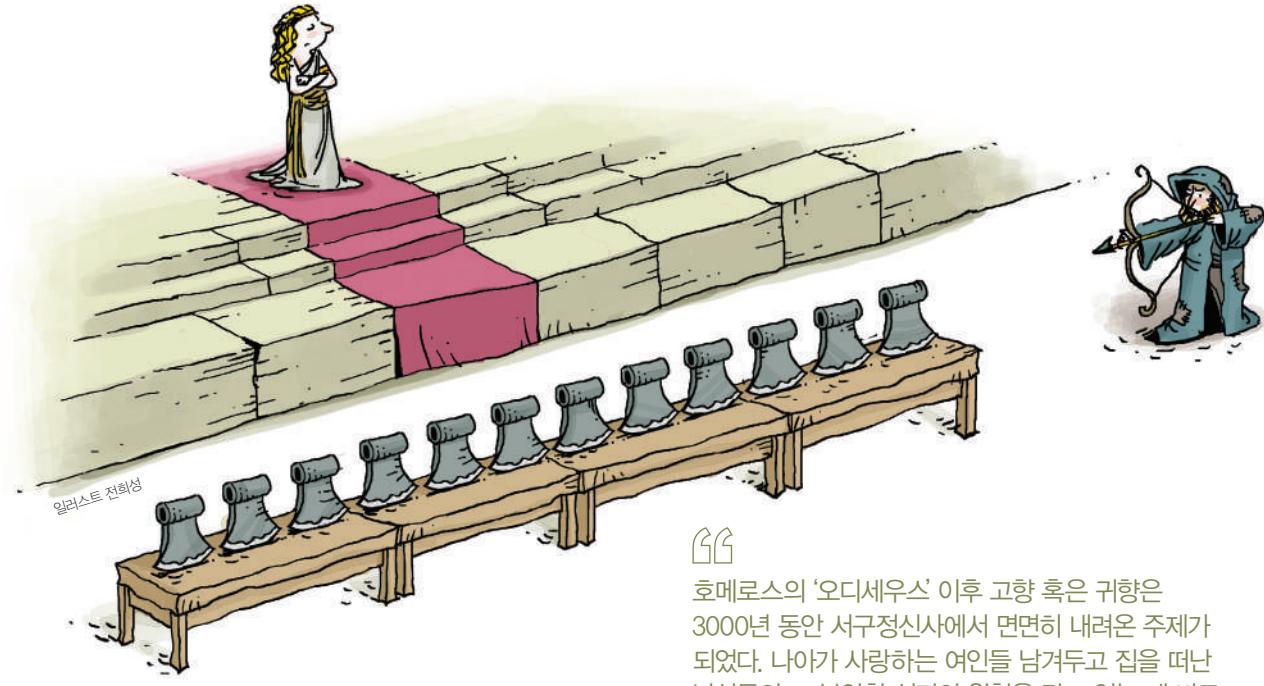
아테네 여신은 오디세우스를 '지혜와 계략에 있어 인간 중에서 제일인 자'로 명명한다. 그래서 지금도 오디세우스는 '지혜로운 자'를 상징한다. 부창부수라고 할까. 아내 페넬로페에 대해서 구혼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안티노오는 "페넬로페가 여자들 가운데 가장 책략에 능한 여자"라고 칭한다. 사실 페넬로페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그녀의 '웃감 짜기' 책략 때문이다. 이타카의 궁에는 오디세우스가 죽은 줄 알고 왕비를 차지하기 위해 구혼자들이 몰려들었다. 이에 페넬로페는 3년 동안 옷을 짜고 다시 푸는 것을 되풀이하며 남편인 오디세우스 왕의 귀향을 기다리면서 구혼자들을 물리치기 위한 시간을 벌었던 것이다. 여기서 페넬로페는 '정조의 여인'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그런데 호메로스는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남자들의 불안 심리를 그리기 위해 오디세우스가 처음부터 아내의 정절을 의심하게 이끈다. 포세이돈의 노여움(그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으로

인해 바다를 표류하는 오디세우스는 어떻게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 지략을 듣기 위해 맹인 예언자 테이레시아스가 있는 하데스 궁으로 찾아가게 된다. 하데스는 죽은 자를 지배하는 신의 이름으로 하데스 궁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머무는 지하세계를 이룬다. 이곳에서 오디세우스는 뜻밖에도 트로이전쟁을 끝내고 함께 귀로에 오른 아가멤논의 영혼을 만나게 된다. 그리스군의 총사령관인 아가멤논은 트로이전쟁에서 귀향하자마자 그의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와 그녀의 정부 아이기 스토스에 의해 살해되어 지하세계에 와 있었던 것이다.

아가멤논은 오디세우스에게 고국에 당도했을 때의 처신에 대해 충고한다. "그대는 그대의 배를 사랑하는 고향 땅에 몰래 대고 남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오. 여인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기 때문이오." 여기서 '여인들을 더 이상 믿지 말라'는 말은 오디세우스의 마음을 훈란스럽게 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페넬로페에 대한 의심과 경고는 오디세우스의 귀향 후 태도에서 현실화된다. 오디세우스는 먼저 아들 텔레마코스와 상면하게 되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 것을 당부한다. "네가 진실로 내 아들이고 우리 핏줄이라면 어느 누구도 오디세우스가 집에 와 있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페넬로페 자신도 그것을 알아서는 안 된다." 어머니에 알리지 말고 오로지 아들만 알고 있을 것을 강조한다. 아가멤논의 제안에 따라 오디세우스는 몰래 귀향을 하고 아내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거지로 행세한다.

사실 왕이자 남편 오디세우스가 부재한 20년 동안 페넬로페의 행동은 정절과는 좀 거리가 있었다. 심지어 페넬로페는



일러스트 전희성



호메로스의 '오디세우스' 이후 고향 혹은 귀향은 3000년 동안 서구정신사에서 면면히 내려온 주제가 되었다. 나아가 사랑하는 여인들 남겨두고 집을 떠난 남성들의 그 불안한 심리의 원형을 담고 있는 게 바로 호메로스의 '오디세우스'라고 할 수 있다. ☺☺

귀향과 아내에 대한 불안은 3000년 간 서구정신사의 주제
호메로스의 '오디세우스' 이후 고향 혹은 귀향은 3000년 동안 서구정신사에서 면면히 내려온 주제가 되었다. 나아가 사랑하는 여인을 남겨두고 집을 떠난 남성들의 그 불안한 심리의 원형을 담고 있는 게 바로 호메로스의 '오디세우스'라고 할 수 있다.

3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원한 무기를 꼽으라면 그것은 고향을 그리는 마음, 즉 '노스탈지어'일 것이다. 여기에 두고 온 여인이 있다면 남성의 불안 심리는 상상하고도 남을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징집이 의무인 현실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전방부대로 내몰린 한국 남성들이야말로 그 불안한 심리를 누구보다 잘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오디세이아'에서처럼 '시경'에도 전쟁으로 고향을 떠난 이들의 마음이 애절하게 담겨 있다. '동산에 가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했네./나 동산에서 돌아올 때 부슬부슬 비가 내렸지/황새는 개미 둑에서 우는데 아내는 집에서 탄식하며/집안 청소하며 쥐구멍 막을 때 출정했던 내가 돌아왔노라.'

'시경'에 나오는 '동산(東山)'이라는 시인데 다행히도 전쟁에서 돌아온 병사는 그래도 아내가 집안청소를 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전쟁터에 나간 남자의 가장 큰 고민이자 불안은 여인의 변심이 아닐까. 우리나라 군인들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자 고민의 대상은 바로 두고 온 여인일 것이다. 어디 군인뿐일까 마는…☺

천연염색 전문가 권성민 정겨운산골 마린도요 대표 곤룡포가 빨간색인 이유? 가장 까다로운 색이라서...

늘 궁금했다. 사극 '불멸의 이순신'에 나오는 빅색이 과연 조선시대의 것과 같은 것일까. 채도 높은 새빨간 이순신 장군의 철릭(무관이 입던 공복)과 너무나 새파란 부하 장수들의 옷들이 과연 전통 방식으로 가능한 것일까. 전통 천연염색 전문가 권성민 정겨운산골 마린도요 대표를 만나기로 마음먹은 것은 그 같은 궁금증 때문이었다.



권성민 대표(54)는 “가능하다”고 했다. 지금 현대인이 입고 있는 옷들의 색상은 대부분 전통 방식으로 재현이 가능하다. 원리는 알고 보면 간단하다. 쪽이라 불리는 나남은 파란색을 내고, 소목으로는 빨간색을, 강황·울금·치자 등으로는 노란색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색의 3원색이 나오면 나머지 색상까지도 모두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초록색을 내려면 노란색으로 먼저 물들인 뒤 파란색을 물들이면 되는 것이다. 보라색은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극에서 보이는 선명한 빨간색, 파란색은 진짜일까. 그것 또한 가능하다. 천연 재료로 매염제(주로 백반이 쓰임)를 쓰면 색이 더욱 선명해지고 물빠짐을 막을 수 있다. 같은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더욱 선명한 색을 얻을 수 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릴 적 손톱에 봉송아물을 들이던 것을 떠올리면 된다. 봉송아를 찔어서 명반(백반)과 섞은 뒤 손톱 위에 올려놓고 천으로 몇 시간 감아두면 손톱이 빨갛게 착색된다. 같은 과정을 되풀이 하면 점점 진한 빨간색이 될 것이다.

전문가 수준으로 올라가면 천연재료에서 색을 얼마나 잘 뽑아내느냐가 관건이다. 재료를 선택하고 추출해내고 보조재료를 얼마나 섞느냐에 따라서 색의 선명도와 지속력이 달라진다. 이것을 잘 해내야 달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한약재인 소목을 다리면 빨간색 물이 우러난다. 여기에 흰 명주를 담궈 물을 들이는 모습. 보다 진한 빨간색을 원하면 천을 말린 뒤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된다.

조직이 단단한 명주의 비밀은 '물끄러작업'

권 대표는 대구에서 지게차 등의 중장비를 임대·매매하던 사업가였다. 합기도 공인 6단인 그는 합기도 체육관을 운영하기도 했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절에서 기거하기도 했다. 산속 절에서 자연을 접하면서 약용식물관리사, 천연염색사 자격증을 따면서 식물을 이용한 천연염색 일을 하게 됐다. 생업으로 시작한 것은 2000년부터다. 3,300m² 규모의 가건물에서 누에(굼벵이)를 직접 재배하면서 천연염색을 하고 있다.

2년 전 함창명주테마공원이 생기면서 지금의 위치에 자리 잡았다. 공원 내 작업실은 주로 판매 및 체험을 위한 곳이고, 대규모 물량은 여전히 기존 작업장을 이용한다. '정겨운산골 마린도요'라는 이름은 권 대표의 '정겨운산골'과 그의 아내 이경은씨(53)가 하는 도예공방인 '마린도요'를 합친 이름이다.

뽕나무로 유명한 상주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누에고치를 테마공원 내에서 직조·판매하고 있다. 이른바 6차 산업(재배+제조+판매)이다. 나비목의 곤충인 누에는 애벌레가 번데기로 되는 과정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 타원형의 고치를 짓는다. 번데기가 나방이 되면 고치를 뚫고 나오는데, 그 전에 고치를 채취하고 그 안의 번데기는 식용으로 판매된다. 흔히 안주·간식으로 먹는 번데기가 여기서 나온 것이다. 2.2g의 고치에서 풀려 나오는 명주 실의 길이는 최대 1500m에 이른다고 한다.

천연염색은 명주(누에고치)·삼베(마)·모시(모시풀)·인견(나무)·광목(목화) 등 천연의 섬유에만 가능하다. 권 대표는 “인공섬유는 색이 먹지 않는다. 따라서 강제로 색을 입히는 것이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천(직물) 중에서는 가장 비싼 명주(明紬)는 비단(緋緞)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실크(silk)라고 한다. 그는 “명주와 실크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명주는 실을 물에 담그며 습도를 유지하는 ‘물끄러작업’을 하며 천을 짠다. 마른 상태에서 짜지는 것보다 습기를 머금은 실이 더 꾹꾹 다져진다. 그래서 이곳의 명주는 정교하고 조밀하다.

백성들이 황토색 옷을 많이 입었던 이유는?

천연염색을 알면 사극을 재밌게 볼 수 있다. 입은 옷의 색에 따라 신분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가장 훤했던 천연염색재료는 감이었다. 그래서 서민들의 옷에 황토색과 회색이 많았다. 감은 매염제가 필요없어 염색이 간단하다. 3분의 2 정도 익은 감을 갈아물을 짜내어 천을 담그면 된다. 철대염제를 섞으면 회색 또는 검은색이 되기도 한다. “감물을 벽에 바르면 새집증후군이 70% 사라진다”고 권 대표가 설명했다. 수치는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감물을 발라서 손해 볼 일은 없을 듯하다.

파란색은 다소 까다로운 색이다. 쪽풀은 해

뜨기 전에 베어야 한다. 해가 뜬 뒤 채취하면 동화작용이 시작돼 색이 옅어진다. 물에 씻어 밟은 뒤 물에 2~4일 담궈 두면 파란물이 우러난다. 이게 끝이 아니다. 섭씨 2000도 이상에서 구운 조개가루를 갈아 넣은 뒤 몇 시간 동안 저어줘야 한다. 조개가루 입자 1개가 쪽염료 1개를 불들고 가라앉는다. 가루입자가 미세할수록 색이 더 고와진다. 며칠 뒤 윗물을 따라내고 건져낸 것이 ‘나님’이라 불리는 염료다. “600kg의 쪽으로 나오는 재료의 양은 10kg”이라고 한다. 이 염료는 불용성으로 물에 녹지 않는다. 단지에 담아 막걸리 또는 효소를 넣고 이불로 덮은 뒤 7~15일온도에 따라 시간이 달라짐)이 지나면 환원이 되는데, 여기에 천을 담궈 물들인다. 이 때 염료가 산소와 만나 산화되면 다시 불용성이 되면서 물에 씻어도 씻기지 않게 된다. “색이 안 빠지는 견뢰도(堅牢度)로 치면 쪽과 감이 최고”라고 권 대표가 설명했다. 참고로 쪽으로 물들인 옷은 모기가 피하고, 쪽밭에는 벌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 서양에서 광부들이 인디고(쪽)로 물들인 청바지를 입었던 이유다.

가장 까다로운 색은 빨간색이다. 쪽과 감은 색이 잘 나오고 틸색이 되지 않지만, 빨간색은 색이 곱게 나오기가 어렵고 틸색이 잘 되어 함부로 입는 옷에는 쓰지 않는다. 임금의 곤룡포와 이순신 장군의 철릭이 빨간색인 이유다. 빨간색은 최고 권위의 상징이었던 것이다.❶



신상목 기리야마 본진 대표 16년 외교관 생활 뒤로 하고 우동에 대한 열정 키워

왠지 그럴 때가 있다. 당장의 생계를 위해 꿈을 접어두었던 20~30대가 지나고 40대가 되면 끓어오르는 내면의 열정을 발산하고 싶을 때가 온다. 그러나 대부분은 한창 자라고 있는 자식과 가족을 위해 꿈을 접게 마련이다. 신상목 기리야마 본진 대표(45)는 남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외무고시 합격과

외교관의 길을 뒤로 하고 '우동'이라는 것에 자신의 열정을 쏟는 결정을 했다.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이라 그의 약력에 관심이 갔다. 89학번인 그가 외무고시에 합격한 해는 1996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2012년, 4년만 더 버텼더라면 공무원연금을 탈 자격(20년 이상 근무)이 됐을 것이다. 지인들과 가족들의 반대가 어떠했을지는 짐작이 간다.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물에 열을 가하면 어느 정도 온도가 높아지다가 임계점에 다다르면 끓기 시작하듯이, 저의 열정도 임계점에 다다랐던 겁니다.”



기리야마 본진 우동의 면은 4일간 숙성시킨 반죽이 비결이다. 기포가 모두 빠져나가 밀가루음식이지만 속이 더부룩해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국물 또한 주재료인 간장을 일본에서 들여와 일본 장인의 방식 그대로 만든다.

내면의 열정에 열을 가한 것은 2000~2002년 일본 와세다대학교 연수 시절 우연히 들린 우동집이다. 도쿄에 위치한 곳이지만 신주쿠(한국으로 치면 강남)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강원도 산골 같은 곳이었다. 처음 이 곳을 들렸을 때는 그저 '맛있다'라는 생각뿐이었다.

4년 뒤 일본 대사관에 발령받은 뒤 다시 그 곳을 방문했다. 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가게의 느낌이나 맛은 세월이 멈춘 듯 예전 그대로

였다. “마치 그 곳에서 변치 않고 나를 기다려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그에게는 늘 품고 있던 문제가 있었다. 변화무쌍한 한국에서 지켜야 할 본질이 무엇일까라는. “그 가게가 상징적으로 그걸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기다림의 미학, 머무름의 미학이라고나 할까요.”

그 가게는 단순히 우동을 파는 곳이 아니라 그의 이상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열정의 온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용기를 내서 주인에게 말을 걸었다. 우동밖에 모르는 시골노인은 이방인을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이렇게 기리야마 우동의 주인 기리야마 구니히코(桐山邦彦·71)와의 인연이 시작됐다.

가까스로 피한 폭탄테러로 '새로운 인생' 결심
그의 열정이 끊기 시작한 임계점은 파키스탄 대사관 근무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었다. 부임 한 달째인 2008년 9월 20일, 수도 이슬라바마드의 한 호텔에서 가족들과 저녁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다. 그날따라 예약시간보다 10분 늦게 도착했다. 도착 직전 폭탄테러로 식당을 포함한 1층 전체가 쑥대밭이 됐고, 체코 대사 등 50여명이 죽고 250여명이 다쳤다. ‘저 사망자 명단에 내가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과 함께 ‘당장 내일 일도 기약할 수 없다면 하루를 살아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자’라는 결심이 구체화됐다. 기리야마 씨에게 그 때 있었던 일을 편지로 쓰면서 결심을 밝혔다. 즉답은 없었지만, 위로와 함께 ‘추후 천천히 얘기해보자’라는 답장이 파키스탄으로 왔다.

다행히 그는 뜨거운 가슴뿐만 아니라 차가운 머리를 갖고 있었다. 바로 사표를 던지지 않고 꾸준히 준비를 시작했다. 몸은 파키스탄에 있지만, 뜻을 같이하는 지인 2명을 일본으로 보내 숙식하며 기술을 전수받았고, 본인도

단순해 보이는 우동이지만, 그 안을 파고 들어가면 엄청난 우동의 세계가 있다. 신상목 기리야마 본진 대표가 만드는 우동은 16년 외교관 생활을 뒤로 할 만큼 매력적인 세계였다.



1년에 일주일간 휴가를 내어 직접 기술을 배웠다. 행정적인 준비도 병행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자 바로 사직서를 냈고 두 달 뒤인 2012년 10월 강남역 인근에 가게를 열었다.

속이 편한 면발의 비결은 4일 숙성된 반죽

대체 어떤 우동이었길래 외교관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것일까? 사소해 보여도 몇 세대를 거치며 전통을 이어온 작은 식당들이 일본에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기리야마 우동의 주인도 평생을 우동만 만들었고, 그 아들도 대를 잇고 있다.

신 대표가 얘기하는 우동의 핵심은 반죽과 밀간장이다. 그가 말하는 반죽의 핵심은 속성이다. 물론 좋은 밀가루와 물을 사용해야 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물의 양, 반죽의 스피드, 습도, 온도다. 이것이 장인의 손맛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기리야마 우동의 면은 반죽 후 4일간 저온숙성을 통해 기포가 빠져나가며 물과 밀가루가 단단하게 결합한다. 밀가루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지는 이유는 반죽할 때 들어가는 기포 때문인데, 기리야마 우동은 먹으면 속이 편안하다. 실제로 시식을 해보니 포만감이 덜한 대신 배부름은 오래 지속됐다. 쌀밥을 먹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다.

반죽의 비결을 더 캐물었지만 영업비밀이다 보니 소금이 들어간다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알아내지 못했다. 면을 삶을 때는 면 부피의 20배 넘는 물에서 강력한 화력으로 빨리 삶는 것이 비결이다. 면이 물에서 춤추듯 해야하는데, 물의 양이 적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집에서 우동을 삶으면 맛이 안 나는 이유다. 국물맛의 비결은 '카에시'라고 불리는 밀간장이다. 카에시는 간장에 여러 가지 부재료들을 양념처럼 넣어 달이고 숙성시키는 것으로

일본의 식당들은 대부분 고유의 카에시 노하우를 갖고 있다. 한식에서 '장맛이 좋아야 음식맛이 좋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신 대표의 가게는 일본 기리야마 우동의 카에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지며, 주재료인 간장도 일본에서 직접 구매하고 있다. 여기에 가쯔오부시(말린 가다랭이)와 콘부(다시마)를 끓인 '다시불'을 섞어 우동국물을 낸다. 물론 이 당시에 들어가는 부재료와 달이는 시간, 불의 세기 등도 맛을 결정하는 노하우다.

신 대표는 “맛을 결정하는 데 기술은 30%다. 나머지 70%는 사실 지루함과의 싸움이다. 매일매일 반죽을 하고, 국물을 만드는 일을 반복하면서 균일한 맛을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 그는 일본 기리야마 씨가 기록한 달력 얘기를 꺼냈다. 매일매일의 날씨, 온도, 습도를 기록한 데이터가 몇 년 치가 쌓여 있더라는 것이다. “정성을 들이는데 기록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대대로 이어지면서 다른 집과는 다른 맛을 내는 것이다. 한국 사람은 기술을 빨리 습득하는 것은 잘하는데, 이런 원칙을 오래 지속하는 것은 잘 하지 못 합니다. 디테일한 것 하나에 몰두할 수 있어야 장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일이 힘들다고 ‘식당이나 차려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꼭 새겨둘 말이다.❷



정부는 지난 9월 22일 정식서명(사진)된 한·캐 자유무역협정의 비준동의(안)을 10월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한·캐 FTA가 조속히 발효돼 보완적 교역구조를 가진 양국 간 무역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캐나다측은 지난 6월 한·캐나다 FTA 가서명 직후 한·캐나다 FTA를 의회심의에 기제출(6월 13일)한 데 이어, 정식서명(9월 22일) 직후 이행법률을 상정(9월 23일)하는 등 조속한 국내절차 완료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한·캐나다 FTA는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하는 날부터 3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된다.

한·중 FTA 재계연합 발족

산업계와 협상 당국 실질적 소통 채널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는 한·중 FTA 협상·비준·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산업계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한·중 FTA 재계연합(이하 재계연합)'을 구성·운영한다.

한·중 FTA 협상은 그동안 민감성 보호와 산업계 이익 간 균형 달성이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해 왔으나 농수산물 등 민감 품목의 보호에 더 치중한 경향이 있었다. 재계연합은 정부와 산업계간 정례적 협력채널을 구축,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인 제조업·서비스 기업의 이익을 협상에 적극 반영하고 협상정보를 공유·피드백 함으로써 FTA 협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정 FTA를 위한 재계연합이 구성되는 것은 한·중 FTA가 처음으로, 협상과정 뿐 아니라 이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애로사항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재계연합에는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및 업종별 단체 등 총 60개의 대표적인 대중 수출업체가 참여하며, 무역협회가 사무국을 담당하게 된다.

재계연합은 △상품 △서비스·투자 △지재권·경쟁 등 세 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되며, 실무회의는 월 1회, 고위급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할 예정이다. 발족회의를 겸한 1차 실무회의는 10월 7일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개최됐다.

무역협회 박천일 통상연구실실장은 "재계연합은 한·중 FTA 협상, 국회비준, 이행과정에서 산업계와 정부간 공식적인 의사소통채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제9차 한·뉴질랜드 FTA 공식 협상 개최

대다수의 쟁점에서 상당한 의견접근 이뤄져

10월 15~16일(수~목) 양일 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9차 한·뉴질랜드 FTA 공식 협상이 하루 연장되어 17일(금) 완료됐다.

우리측은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수석대표) 외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대표단이, 뉴질랜드측은 데이비드 워커(David Walker) 외교통상부 차관보(수석대표) 외 외교통상부, 일차산업부, 관세청 등 정부대표단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 상품, 원산지, 협력 등에서 남은 대다수의 쟁점에서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다. 양측은 이번 협상의 논의 결과가 한·뉴 FTA에 중요한 진전을 가져왔음을 확인하고, 현재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협상 타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TPP 연내 타결 가능성은?

미·일 실무레벨 협상, 기간 연장까지 하며 집중 논의

미·일 양국 간의 TPP 협상 실무레벨 협의가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도쿄에서 재개됐다. 일본 측은 오오에 히로시 수석 협상관 대리(사진 오른쪽), 미국 측은 USTR의 커틀러 차석 대표 대행(사진 왼쪽)이 참석해 일본의 농산물 수입 관세 및 미국의 자동차 부품 관세 부분에 있어 합의점을 모색했으며, 소·돼지고기 및 유제품 등의 관세 인하와 세이프 가드에 대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했다. 양국은 TPP

형차의 관세도 3년째까지 철폐된다.

또한 일본이 호주로부터 수입해오는 쇠고기의 관세(현 38.5%)가 크게 낮아지게 되는데, 음식점 등에서 사용되는 냉동 쇠고기는 내년 1월 발효를 가정하는 경우 4월 1일을 기점으로 1년마다 세율을 인하해 1년째 30.5%, 2년째가 되는 4월부터는 28.5%로 몇 달 만에 총 10% 내리게 되며, 18년째에 19.5%로 인하된다. 그러나 관세 인하로 수입 원가는 내려가지만, 유통 비용 등이 더 크기 때문에 '내년 가격 인하는 1~2% 정도(업계 관계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호주는 일본에 4번째 규모의 무역 상대국이다. 'TPP를 둘러싼 미·일 교섭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호주 EPA 발효는 미·일 교섭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정부 관계자)'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지난 4월 8일 정식서명된 한·호주 FTA의 한국측 비준동의안은 9월 16일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호주는 5월 의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참가국 전체 각료회의 전까지 실무레벨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의는 9월 결렬된 미·일 장관급 회담보다는 협상이 진전된 것이라는 평이다. 일본 측 대표인 오오에 히로시 수석 협상관 대리는 협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확실히 착실한 성과는 있었다. 그러나 할 일이 여전히 산더미"라고 말했고, 미국 무역 대표부(USTR)의 커틀러 차석 대표 대행도 "남아있는 과제가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마리 아기라 일본 경제 재정·재생상은 10일 각료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실무레벨 협의에 대해 "한쪽에만 유연성을 요구하는 협상은 실패한다. (타결 마감)시한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착지점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미·일 양국 정상은 15일 오전 전화 정상회담에서 TPP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아베 총리는 전화 회담 후 관저에서 기자에게 "협상을 가속화시키는 것에 (의견을) 일치했다.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11월 APEC 회의를 TPP 협상 타결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가운데 협상 타결을 위한 미·일 실무레벨 협의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국내산과 역내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대부분의 FTA에서는 누적기준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자국산뿐만 아니라 FTA 체결 상대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부품도 자국산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가 특정 제품의 원산지기준을 '부가가치기준 50% 이상'으로 규정하는 경우, 국내산 재료를 50% 이상 써도 되지만, 한국산과 미국산 재료를 혼친 부가가치가 50%를 넘어도 원산지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봅니다. 국내산 재료만으로 원산지기준을 만족시키면 국내산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지만, 한국산과 미국산 재료를 혼용해 원산지기준을 만족한 경우는 역내산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역내산이 국내산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FTA를 좀 안다고 하면 국내산보다는 역내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편 이 누적기준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의 광역 FTA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12개국이 참여하는 TPP가 발효될 경우 일본은 일본산 부품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생산한 제품 또는 베트남산 부품으로 멕시코에서 생산된 제품을 미국, 호주, 칠레 등으로 수출해도 대부분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산 부품으로 베트남 또는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에 판매할 경우 FTA 적용에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멕시코 생산 제품의 경우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를 활용하려 해도 한국산 부품 비중이 크면 멕시코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베트남에서 생산된 부품으로 한국에서 조립해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베트남산 비중이 커 역시 한·미 FTA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적기준은 경제통합 논의에서 꼭 따져봐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독자의 소리 <함께하는 FTA>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농촌에 살면서 FTA에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FTA 책자를 꼼꼼히 읽어 보고 느낀 건 FTA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고, FTA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 수출길에 오른 경남고성 가바쌀의 행보가 무척 궁금합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쌀산업이 고부가 가치화 산업으로 새롭게 탄생되길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차상례(경북 성주군 용암면)

FTA는 협상·체결보다는 활용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 나라와의 FTA에서 이익이 되는 분야와 손해를 보는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주로 농업에서는 손해가 있다고들 합니다. 농업에서는 활용을 잘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농축산물 민감품목에도 적극 대응하고 밭작물

경쟁력 제고 노력을 한다면 중국의 영향도 능히 극복하고 이겨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김희용(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22번길)

매월 '함께하는 FTA'를 빠짐없이 꼬박꼬박 챙겨 읽고 있는 세 아이의 엄마이자 21년차 주부입니다.

다. 항상 도움이 되는 내용도 많고 다양한 정보와 상식들을 기사에 많이 담고 신선한 기사거리도 많아서 주변사람들에게도 정말 많이 추천하고 있어요. 10월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는 '황이슬 손장디자인한복 대표-패션리더들도 환호하는 일상의 한복을 만들다라는 기사였네요. 한복을 알리려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윤정이(전남 순천시 서면 죽평리)

FTA가 체결된다고 했을 때 농민들이 대거 시위했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 때 쌀이 수

입되어 농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능성 쌀인 가바쌀이 미국에 수출된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이런 상품을 많이 개발해서 해외 수출의 기쁨을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일수(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5길)

'함께하는 FTA'는 우리나라 산업계 전반의 성장과 세계적 진출 정도를 느낄 수 있는 좋은 정보지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나와 관련 있는 일이 아니라며 무관심했던 분야까지 폭넓게 이해하고 관심을 갖게 되어 저 스스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이 세계인들의 입맛과 건강을 점령하려 수출의 물꼬를 틔다는 소식이 정말 반가웠습니다.

강현정(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야근 때문입니다

도시의 야경이 화려할수록
가정의 한숨은 깊어집니다

수요일은 정시퇴근으로
가정의 불을 밝혀주세요.



FTA 활용과 인증 표준 업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FTA무역종합지원센터

1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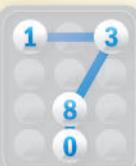
국내외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전국 어디서나
FTA 콜센터 1380,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FTA 콜센터 1380과 인증 표준 콜센터 1381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상담,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FTA 콜센터 1380

FTA 협정별·품목별 원산지 증명서 작성,
사후검증 대응,
원산지시스템 구축 상담 등
FTA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350여 개의 해외인증과 300여 개의 국내 인증 및
4만 3천여 개의 표준 정보를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품목별·국가별
맞춤형 정보로 가공해 제공